나만의 문제지 - 2학기 수행평가

문제은행

1

1. <보기>를 참고하여 서술어의 자릿수를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서술어의 자릿수 : 한 문장 안에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수로 주어, 목적어, 보어 및 부사어가 대상이 된다.

한 자리 서술어 : 주어만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

· 개나리가 피었다. / 장미꽃이 붉다.

두 자리 서술어 : 주어 외에 목적어나 보어 및 부사어 중의 하나를 더 요구하는 서술어

· 소가 여물을 먹었다. / 태호는 운동 선수가 아니다. / 이곳의 기후는 농사에 적합하다.

세 자리 서술어 : 주어 외에 필수적으로 두 가지 문장 성분을 더 요구하는 서술어

· 나는 동생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다.

[2점]

① 문장 : 물이 얼음이 되었다. 서술어의 자릿수 : 두 자리 서술어 바른 판단 여부 : X

② 문장 : 개나리가 소담스럽고 예쁘게 피었다. 서술어의 자릿수 : 한 자리 서술어 바른 판단 여부 : ○

③ 문장 : 우리들의 우정은 빛나는 보석과 같다. 서술어의 자릿수 : 세 자리 서술어 바른 판단 여부 : X

④ 문장 : 할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세뱃돈을 주셨다. 서술어의 자릿수 : 세 자리 서술어 바른 판단 여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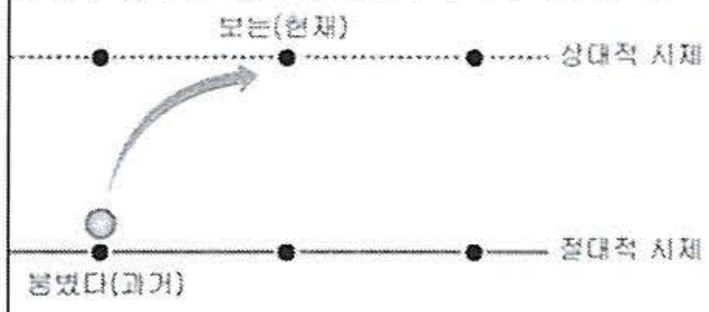
⑤ 문장 : 나는 어제 정말로 재미있는 연극을 보았다. 서술어의 자릿수 : 두 자리 서술어 바른 판단 여부 : ○

2. <보기>에서 설명한 '상대적 시제'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보기

○ 상대적 시제

'동대문 시장은 추석장을 보는 사람들로 붐볐다.'라는 문장에는 층위가 다른 두 시제가 있다. 문장 전체의 절대적 시제는 '붐볐다'로 과거이지만, 문장 속에 '보는'이라는 현재 시제가 하나 더 있다. 이때의 '보는'은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가 되는데, 이런 것을 상대적 시제라고 한다.



[2점]

① 그녀는 갈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② 지금까지 쓴 원고가 이천 장이 넘는다.

③ 앞으로 이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이 줄겠어.

④ 어제 언니가 내게 아주 예쁜 구두를 선물했어.

⑤ 아직도 빨아야 할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3. <보기 1>을 참조하여<보기 2>를 높임의 대상에 따라 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기1

주체 높임법 :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며, 선어말 어미'(으)시',주격 조사'께서',접사 '님',몇 개의 특수한 어휘로 실현됨.

상대 높임법 : 말 듣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며 종결 표현으로 실현됨.

객체 높임법 :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며, 특수한 동사나 부사격 조사'께'로 실현됨.

보기2

㉠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 교장 선생님께서 곧 오신답니다.

㉣ 외할머니께서 방금 오셨다.

분류	주체를 높임	상대를 높임	객체를 높임	주체와 상대를 동시에 높임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2점]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4. <보기>의 예를 토대로 주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탐구 활동을 해 보았다. 그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집이 마당이 좁다.

ㄴ. 우리 선생님은 키가 크시다.

ㄷ.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큰일이다.

ㄹ. 언제나 저 노래를 들으면 참 슬프다.

ㅁ. 철수는 자기 동생을 극진히 사랑한다.

ㅂ. 이제 그만 놀고 어서 빨리 집에 가거라.

	자료		탐구 내용
①	ㄱ, ㄴ	→	문장에 서술절이 안겨 있으면 안은문장의 주어 외에도 안긴문장의 주어가 있어 주어가 둘 이상 있는 것처럼 보인다.
②	ㄷ, ㅂ	→	주어가 생략되어 있을 때, 여러 문장 성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략된 주어를 명확하게 추리할 수 있다.
③	ㄴ	→	존대해야 할 대상이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존대의 의미를 나타낸다.

④	ㄹ	→	화자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 서술어로 사용된 경우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
⑤	ㅁ	→	한 문장 안에서 주어와 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뒷말을 '자기'로 대체한다.

[2점]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5. <보기>의 밑줄 친 ㉠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은?

보기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절의 형태로 안겨서 만들어지는 문장을 '안은 문장'이라고 하는데, 안긴 문장의 기능이나 형태에 따라 '명사절을 안은 문장', '관형절을 안은 문장', '서술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을 안은 문장', '인용절을 안은 문장'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관형절을 안은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기면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으로서, 이때 관형절은 '-(으)ㄴ', '-는', '(으)ㄹ', '-던' 등의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 예쁜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은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 속에 안기면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관형절을 안은 문장에 해당한다.

[2점]

① 토끼는 앞발이 매우 짧다.
② 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③ 영재는 3반이고 귀호는 4반이다.
④ 사람들은 그가 다녀갔음을 알고 있다.
⑤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연결 어미 '-다가'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요즘 날씨가 춥다가 덥다가 변덕을 부린다.
ㄴ. 그녀는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ㄷ. 나는 어제 액자를 걸 못을 박다가 손을 다쳤다.
ㄹ. 아이들이 운동하다가 지금은 어른들이 운동한다.

[2점]

①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이 다른 일의 원인이 됨을 나타내기도 하는군.
② ㄱ을 보니, '-다가'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 번갈아 일어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군.
③ ㄴ, ㄹ을 보니, '-다가'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전환되는 상황에서도 사용되는군.
④ ㄷ을 보니, '-다가'는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이 다른 일의 원인이 됨을 나타내기도 하는군.
⑤ ㄴ, ㄷ, ㄹ을 보니, '-다가' 앞뒤 문장의 행위가 바뀐 경우에는 주어가 달라져야 하는군.

7.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준수는 홍연이가 착한 아이임을 금세 알아차렸다.
㉯ 아름다운 그녀의 정원에는 빨간 장미가 가득 피어 있다.
㉰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볼 수 있고, 빨리 나는 새는 멀리 갈 수 있다.

[2점]

① ㉮~㉰에는 모두 안긴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② ㉮에는 주어가, ㉯에는 목적어가, ㉰에는 서술어가 생략되었습니다.
③ ㉮의 '홍연이가 착한 아이임'은 명사절로서 목적어의 기능을 합니다.
④ ㉯는 문장의 구조를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따라 의미 해석도 달라집니다.
⑤ ㉰는 각각 관형절을 하나씩 안은 문장 두 개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8.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단어가 형성된 것은?

보기

새말을 만들 때, 이미 있던 말들을 가지고 합성하거나 파생시켜 새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방법이다. 새말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는 어느 언어에서나 공통된 현상이다. '불고기, 꼬치안주, 가락국수, 한글, 낱말, 홀소리, 닿소리……' 등이 합성법에 의해 만들어진 새말들이다.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통조림'은 파생법에 의한 '조림'과 '통'의 합성, '맞춤법'은 파생법에 의한 '맞춤'과 '법'의 합성, '손톱깎이'는 합성법에 의한 '손톱깎'에 접사 '이'가 붙어서 파생된 새말들이다.

[2점]

① 어렴풋이
② 구석차기
③ 중병아리
④ 어린아이
⑤ 모눈종이

나만의 문제지 - 2학기 수행평가

문제은행

3

9. 수업 시간에<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장의 종결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가.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으세요?
나. 너한테 그깟 책 한 권 못 사 줄까?
2가. 날씨가 추울 테니 옷을 많이 입어라.
나. 삼천리강산에, 아아, 우리들은 살았어라.
3가. 얘야, 넘어질라.
나. 자, 우리 함께 집에 가자.

[2점]

① '1가'는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구나.
② '1나'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긍정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구나.
③ '2가'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이구나.
④ '2나'에 쓰인 종결 어미 '어라'는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구나.
⑤ '3가'와 '3나'에서 문장의 주어는 듣는 이가 되고, 서술어로는 동사만 올 수 있구나.

10. <보기>의 ㉮~㉰를 토대로 국어의 복수 표현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학생 셋을 만났다. (○) / 학생 셋들을 만났다. () / 학생 세 명들을 만났다. ()
㉯	너희는 이제 어디로 갈 거니? (○) / 너희들은 이제 어디로 갈 거니? (○)
㉰	사람이 역에 많이 있었다. (○) / 사람들이 운동장에 많이 모였다. (○) /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다. ()
㉱	물들이 많이 흐르고 있다. () / 시간들이 많이 흘렀다. ()
㉲	공부들 부지런히 해라. (○) / 여기들 잠자코 있어라. (○) / 어서들 오너라. (○)

[○ : 어법에 맞음, : 어법에 틀림]

[2점]

① ㉮ → 수사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는 복수 접미사가 결합하지 못한다.
② ㉯ →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③ ㉰ → 단수와 복수의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는 말이라도 문맥에 따라서 복수 접미사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④ ㉱ → 분절적으로 나뉘지 않아 개수를 셀 수 없는 명사에는 복수 접미사가 사용될 수 없다.
⑤ ㉲ → 복수 접미사는 명사 외에 부사에도 붙어 서술어의 주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1. <보기>로 미루어 볼 때,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남의 말이나 글을 직접이나 간접으로 따온 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인용문이라 한다. 그런데 남의 말을 간접으로 인용할 때에는 직접 인용에 나타나는 사항들이 여러 형태로 변한다. 다음은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꾼 문장이다.

ㄱ. 그는 어제 '내일 비가 오겠어.'라고 했다.
→ 그는 어제 오늘 비가 오겠다고 했다.
ㄴ. 순희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순희는 자기가 가겠다고 말했다.
ㄷ. 그녀는 '빨리 떠납시다.'라고 재촉했다.
→ 그녀는 빨리 떠나자고 재촉했다.
ㄹ. 그는 '물을 한 컵 주시오.'라고 애원했다.
→ 그는 물을 한 컵 달라고 애원했다.

[2점]

① 직접 인용문의 대명사는 간접 인용문에 어울리게 바뀔 수 있다.
② 직접 인용절의 서술어와 간접 인용절의 서술어가 달라질 수 있다.
③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높임의 단계가 조정될 수 있다.
④ 직접 인용을 할 때와 간접 인용을 할 때의 시간 표현이 바뀔 수 있다.
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인용절 이외의 다른 절이 나타날 수 있다
.

12. <보기>에서 설명한 '간접적인 발화'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발화에는 행위를 수반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행위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때 이를 '간접적인 발화'라고 한다. 간접적인 발화는 흔히 공손하게 표현하거나 정중하게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그 구체적인 의미는 장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2점]

① 문을 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② 자리를 옮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③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④ 소리를 조금만 낮추어 주시면 안 될까요?
⑤ 이제부터는 39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 볼까요?

13. <보기>의 예문을 통해 '능동문'과 '피동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그 아이가 나를 밀었다. → 내가 그 아이에게 밀렸다.
○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 → 그들이 우리에게 졌다.
○ 연이 나무에 걸렸다. \ *not* → *연을 나무에 걸었다.
* : 앞 문장과 동일한 의미가 아님을 의미

[2점]

① 피동사는 능동사에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다.
② 피동문의 부사어에 사용하는 조사는 서술어에 따라 달라진다.
③ 어떤 피동문의 경우 일대일로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가 있다.
④ 피동문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능동문은 반대말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⑤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바뀐다.

14. <보기 1>에서 설명한 '상대적 시제'가 나타나 있는 것을<보기 2>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1

[상대적 시제]
'나영이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태호를 멀거니 쳐다보았다.'라는 문장에는 두 가지 시제가 들어 있다. 문장 전체의 절대적 시제는 과거이다. 그런데 문장 속에 '지나가는'이라는 현재 시제가 하나 더 있다. 이것은 과거 속의 현재가 되는데, 이런 것을 '상대적 시제'라고 한다.

보기2

㉠ 저 생선은 비린내가 몹시 심하게 난다.
㉡ 갈증 때문에 그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었다.
㉢ 안개로 인해 배가 암초에 걸리고 말았다.
㉣ 소녀들의 화사한 옷차림에 기분이 좋아졌다.

[2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5. <보기>의 밑줄 친 말과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병찬 : 이 책은 지루해서 읽기가 싫어. 너는 그 책 다 읽었니?
나연 : 이 책 읽으려면 아직 멀었어. 그 책이 재미없으면 저 책을 읽어 봐. / 병찬 : 저 책은 이미 읽었어.

[2점]

① 병찬과 나연이 대화를 하는 장소에는 책이 두 권 있다.
② '이'는 말하는 이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인다.
③ '그'는 물리적으로 말하는 이에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인다.
④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떨어진 대상을 나타낼 때는 '저'가 사용된다.
⑤ 병찬의 '이 책'과 나연의 '이 책', 병찬의 '저 책'과 나연의 '저 책'은 같은 대상이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감탄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종결 양식을 감탄문이라고 한다.
ㄱ. 네가 벌써 대학생이 되는구나!오늘은 달이 참 (밝구나! / 밝구먼! / 밝구료!)이것이 네가 먹고 싶어 하던 것이로구나!
ㄴ. 아이고! 추워라!
* 아이고! 철수가 추워라!
* 아이고! 네가 벌써 대학생이 되어라!
(* 비문 표시)

[2점]

① 감탄문도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대 높임법을 적용해 쓰는군.
② 감탄형 어미 '-구나'와 달리 '-어라'는 청자를 고려하지 않은 독백에서 나타나는군.
③ 감탄형 어미 '-구나'는 감탄형 어미 '-어라'와 같이 형용사나 동사에 모두 쓰이는군.
④ 감탄형 어미 '-어라'는 느낌의 주체가 말하는 이가 아니면 감탄문으로 성립하지 않는군.
⑤ 감탄형 어미 '-구나'는 동사에서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는-'과 결합하여 쓰이기도 하는군.

17. 다음은 모호한 문장의 해결을 위해 토의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영이는 사랑하는 친구의 오빠를 만났다.	
	모호한 이유	주영이가 사랑하는 대상이 '친구'인지, '친구의 오빠'인지 불명확하다.
	해결 방안	명확한 수식어의 사용
	구체적 설명	수식어가 가리키는 피수식어의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또, 긴 수식어는 문장의 의미를 흐리게 한다.
	올바른 문장	주영이는 사랑하는, 친구의 오빠를 만났다.

	박 선생님은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분이다.	
②	모호한 이유	어느 부분을 어떡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해결 방안	수식 범위의 한정
	구체적 설명	수식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의미가 불분명해진다. 이런 경우 수식 범위를 한정해야 분명한 문장이 된다.
	올바른 문장	박 선생님은 누구나를 다 좋아할 수 있는 분이다. 박 선생님은 누구나가 다 좋아할 수 있는 분이다.
③	한수는 나보다 낚시를 더 좋아한다.	
	모호한 이유	한수가 좋아하는 대상이 '나'인지 '낚시'인지 분명하지 않다.
	해결 방안	비교 대상의 한정
	구체적 설명	비교 대상을 밝히면 분명한 문장이 된다.
	올바른 문장	한수는 나를 좋아하기보다 낚시하기를 더 좋아한다. 나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한수는 나보다 더 낚시하기를 좋아한다.
④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모호한 이유	의존 명사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
	해결 방안	의존 명사 '것'의 지칭 범위 한정
	구체적 설명	의존 명사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게 해 준다.
	올바른 문장	그가 걸음을 걸을 수 없는데 걷는다니 이상하다. / 그의 걸음 걷는 모습이 이상하다.
⑤	철수는 꽃을 꺾지 않았다.	
	모호한 이유	부정문은 때로 그 뜻이 여러 가지로 풀이될 수 있다. 부정하는 대상에 다라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해결 방안	부정 대상의 한정
	구체적 설명	이런 경우 보조사(-는,-도,-만)를 써서 한 가지 뜻만 나타낼 수 있다.
	올바른 문장	철수는 그 꽃도 꺾지 않았다./철수는 그 꽃만 꺾지 않았다.

[2점]

18. <보기>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세 자리 서술어'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루기 위해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효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르다. 예를 들어 '그가 짐을 날랐다.'의 경우에'날랐다'(기본형 '나르다')는 주어와 목적어라는 두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이것은 두 자리 서술어이다.

[2점]

① 나는 이 문제를 선생님과 의논하련다.
② 영미의 취향은 나와는 아주 딴판으로 달라.
③ 아버지는 오빠를 집안의 대들보로 여기신다.
④ 그 양반은 친구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았단다.
⑤ 누나가 우리에게 자기 모습이 담긴 사진을 주었다.

19. <보기>는 높임 표현을 익히기 위한 과제이다. 잘못 표시한 곳의 개수로 적절한 것은?

보기

과제: 화자가 주체보다 높임의 대상인 문장에는 ☆로, 화자가 청자보다 낮춤의 대상인 문장에는 △로 표시하시오.

높임 표현의 예		화자와 주체의 관계	화자와 청자의 관계
외할머니께서는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		△
우리 형부가 나에게 용돈을 주셨다.	→	☆	△
누님이 제게로 달려 오셨습니다.	→	☆	△
동생이 나보고 놀자고 보챘다.	→	☆	△

[2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0. 종속적 연결 어미의 쓰임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종속적 연결 어미는 두 개의 문장(절)을 연결 어미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관계로 연결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

연결 어미	용례	문장의 관계
-으면	기차가 제 시간에 왔으면 우리가 지각하지 않았을 텐데.	앞의 문장이 뒤 문장의 사건이 발생하게 하는 원인에 해당한다. … ①
-어서	어머니는 솥을 씻어서 쌀을 안쳤다.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시간적 선후 관계로 연결된다. … ②
	강이 깊어서 아이가 건너기는 어렵다.	앞의 문장이 뒤 문장의 이유나 근거를 나타낸다. … ③
-으러	친구가 지난번에 맡긴 것을 찾으러 왔다.	앞의 문장이 뒤 문장의 행동 목적을 나타낸다. … ④

-을수록	이 책은 읽을수록 새로운 감동을 준다.	앞의 문장이 뒤 문장의 내용 정도가 더하거나 덜하게 되는 조건임을 나타낸다. … ⑤

[2점]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21. 다음 문장이 홑문장인지 겹문장인지 판단하시오.

철수는 연극을, 영희는 영화를 좋아한다.

[2점]

22. <보기>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례들을 찾아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음과 같이 쓰임에 따라 품사를 달리하는 단어들을 모둠별로 탐구하여 보자.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명사) -나도 그 사람만큼 뛸 수 있다. (조사)

[2점]

① 선을 바로 긋다.
그 사람은 바로 떠났다.
② 아니! 벌써 갔어?
오늘은 아니 온다더라.
③ 모두 제 잘못입니다.
소년은 길을 잘못 들어섰다.
④ 본 대로 말하십시오.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어요.
야구를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모였어요.

23. <보기>를 바탕으로 '사동 표현'에 대해 탐구 학습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를 주동사(主動詞)라고 하고,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를 사동사(使動詞)라고 한다. 사동사는 주동사에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의 사동 접사를 붙여 만들 수 있다.

㉠ 그의 연주는 박자가 늦었다.
- 그는 박자를 늦추어 연주했다.

㉡ 길이 넓다.
- 시에서 길을 넓힐 예정이다.

㉢ 승객이 타자마자 버스는 출발했다.
- 승객을 태우자마자 버스는 출발했다.

㉣ 그의 소가 여물을 먹고 있다.
- 그는 소를 먹여 생계를 유지했다.

㉤ 아이가 새 옷을 입었다.
-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었다.

선택 자료 탐구 학습 결과

[2점]

① ㉠, ㉡ → 사동사는 형용사에 사동 접사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도 만들어진다.
② ㉠, ㉤ → 사동사를 이용해 만들어진 문장은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③ ㉡, ㉢ → 주동사를 사동사로 바꾸면 주동사의 주어는 사동사의 목적어가 된다.
④ ㉢ → 주동사에 사동 접사 두 개를 함께 붙여 사동사를 만들기도 한다.
⑤ ㉣ → 주동사에 사동 접사가 결합한 형태라도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24. <보기>는 조사 '와'의 쓰임을 정리한 것이다. a~c에 해당하는 내용과 ㄱ~ㄷ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조사 '와' : 여러 사람이나 사물을 열거하거나 행위를 함께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ㄱ. [명사와 명사 구실을 하는 표현 사이에 쓰여] 앞뒤 명사를 모두 가리킨다.
ㄴ. [주로 동사나 형용사와 함께 쓰여] 비교의 대상이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ㄷ. [주로 일정한 동사와 쓰여] 함께 어떠한 일을 하고 있거나 어떠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

a. 나는 과일 중에서도 사과와 배를 가장 좋아하는 편이다.
b. 지금 운동장에서 철수가 같은 반 아이와 싸우고 있어요.
c. 성격이나 행동 등 모든 면에서 내 동생은 언니와 다르다.

a b c

[2점]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ㄷ ㄱ
④ ㄷ ㄱ ㄴ
⑤ ㄷ ㄴ ㄱ

25. <보기>와 같은 방식으로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려고 한다. 바꾸었을 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보기

[능동 표현] 철수가 달려가던 고양이를 붙잡았다.
↓
[피동 표현] 달려가던 고양이가 철수에게 붙잡혔다.

[2점]

① 호랑이가 닭을 잡아먹는다.
② 새벽에 교회 종소리를 들었다.
③ 내 동생이 재빨리 문을 닫았다.
④ 아이들이 진우를 회장으로 뽑았다.
⑤ 사나운 개가 지나가던 행인을 물었다.

26. 문장에서 일부 문장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ㄷ. 그 아이는 예쁘게 생겼다.
ㄹ. 작은 것이 아름답다.
ㅁ. 우리도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2점]

① ㄱ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야.
② 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네 개야.
③ ㄷ을 보면 부사어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④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될 수 있지만 ㄹ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
⑤ ㅁ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해.

27.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의존명사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의존명사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집을 떠나 온 지가 어느덧 3년이 되었다.
ㄴ. 예전에 가 본 데가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다.
ㄷ. 그는 웃고만 있을 뿐이지 싫다 좋다 말이 없었다.
ㄹ. 그는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ㅁ.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네가 말한 것을 찾아보겠다.
ㅂ. 친구들이 떠드는 통에 교실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자료 선택		탐구 결과
①	ㄴ, ㅁ	→	문맥을 해치지 않고 자립명사로 바꿀 수 있는 의존명사들이 있다.
②	ㄱ, ㅁ, ㅂ	→	'-ㄴ(은/는)', '-ㄹ(을/를)' 등의 어미로 끝난 말들과 자유롭게 결합하지 못하는 의존명사가 있다.
③	ㄹ, ㅁ	→	조사와 결합되지 않고 사용되는 의존명사들이 있다.
④	ㄱ, ㄷ, ㅂ	→	'이/가', '을/를', '이다' 등 여러 격조사와 자유롭게 결합하지 못하는 의존명사들이 있다.
⑤	ㄱ~ㅂ	→	의존명사는 관형어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온전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2점]

① ② ③ ④ ⑤

28. <보기 1>의 개념을<보기 2>에 적용해 보았다.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다른 말(본용언)에 기대어 쓰이면서 그 말에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 한다. 여기에는 동사를 보조하는 '보조 동사'와 형용사를 보조하는 '보조 형용사'가 있다. 보조 용언의 경우 본용언을 제거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기2

1. 나는 울고 싶었다.
   1.1 나는 울었다. 1.2 *나는 싶었다.
2. 나는 사과를 깎아 먹었다.
   2.1 나는 사과를 깎았다.
   2.2 나는 사과를 먹었다.
3. 나는 병문안을 가면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는데 친구는 빨리 낫고 싶다고 했다.

[2점]

① 1의 경우 1.1처럼 보조 용언을 제거해도 문장은 성립하지만, 1.1과 비교하면 특정의 문법적 의미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1.2처럼 '싶었다'는 혼자 쓰이기 어려우므로 '싶다'는 의존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2의 경우 '깎다'와 '먹었다'는 두 개의 용언을 어미 '-아'로 연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2.2의 '먹다(먹었다)'는 '깎다' 없이도 홀로 타동사로 쓰일 수 있으므로 보조 용언으로 보기 어렵다.
⑤ 3의 '가다'와 '싶다'의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로 다르지만 보조 용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29. <보기 1>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보기 2>의 문장에 대해 파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홑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이루어지는 문장
겹문장 : 홑문장이 서로 이어지거나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문장
이어진 문장 : 둘 이상의 절(節)이 연결 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 종속절(從屬節)과 주절(主節)로 이루어짐
안은 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며 성분절을 가진 문장
안긴 문장
① 명사절 : 절의 어미가 명사형 어미 '-(으)ㅁ, -기'로 되거나 관형사형 어미 '-는' 뒤에 의존 명사 '것'이 더하여 이루어짐
② 관형절 : 종결 어미('-이다', '-다' 등)로 끝난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는' 이 붙거나 종결 어미가 나타날 자리에 관형사형 어미 '-ㄹ, -ㄴ'이 붙어서 이루어짐
③ 부사절 : 문장에서 용언을 한정하여 부사어 구실을 하는 절
④ 서술절 :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서술하는 절

보기2

㉠ 순이는 자기 집 개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다고 말했다.
㉡ 그는 이 고장에서 태어났고, 평생 동안 이 고장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
㉢ 기봉이는 미술에 소질이 있음이 드러났다.
㉣ 이 책은 글씨가 너무 작다.
㉤ 가을 저녁에는 산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다가온다.

[2점]

① ㉠ 남의 말을 간접으로 인용한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 겹문장
② ㉡ 문장의 길이는 길지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이루어져 있다. → 홑문장
③ ㉢ 한 문장의 서술어가 '-ㅁ'이라는 명사형 어미를 취하여 형성된 절을안고 있다. → 명사절을 안은 문장
④ ㉣ '주어+서술어'가 또 다른 문장의 서술어로 사용되었다. → 서술절을 안은 문장
⑤ ㉤ '소리도 없이'가 서술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 부사절을 안은 문장

30. 수업 시간에<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장의 종결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가.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으세요?
나.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2가. 날씨가 추울 테니 옷을 많이 입어라.
나. 삼천리강산에, 아아, 우리들은 살았어라.
3가. 얘야, 넘어질라.
나. 자, 우리 함께 집에 가자.

[2점]

① 1가'는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구나.
② 1나'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의 효과를 나타내는 문장이구나.
③ '2가'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이구나.
④ 2나'에 쓰인 종결 어미 '어라'는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구나.
⑤ 3가'와 '3나'에서 문장의 주어는 항상 듣는 이가 되고, 서술어로는 동사만 올 수 있구나.

3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설명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보기>

서술어는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 하며, 예시 문장에서 서술어 '주다'는 세 개의 성분이 필요하다.
예시 : 할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세뱃돈을 주셨다.

[2점]

① 물이 투명한 얼음이 되었다.
② 화분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③ 친구와의 우정은 보석과도 같다.
④ 영희는 철수에게 엽서를 보냈다.
⑤ 학생들이 도서실에서 책을 읽는다.

32. <보기>는 동화의 첫 부분이다. ( )의 조사를 선택한 후,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는) 살고 있었습니다. ㉡ 할아버지(가/는)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했지요. ㉢ 그러나 돼지(를/는) 무척 싫어했습니다. ㉣ 할아버지에게(는/도)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말썽꾸러기 돼지(가/는) 다른 동물들과 달랐습니다. 개처럼 말을 잘 듣지도 않았고, 고양이처럼 애교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3점]

①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이야기에서 처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②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앞 문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③ ㉢에서는 목적어 '돼지'를 다른 동물과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④ ㉣에서는 앞 문장에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해.
⑤ ㉤에서는 앞 문장에 '말썽꾸러기 돼지'가 나오고, 뒤 문장에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 소개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해.

33. <보기>와 같이, 접두사의 의미를 이용해서 그 접두사가 결합된 파생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활동을 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웃' : (아래위의 대립이 없는 몇몇 명사 앞에 붙어) '윗'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구하기 힘든 약이라 웃돈을 주고 특별히 주문해서 사 왔다.

[2점]

① 몰 :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이 전혀 없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그는 남의 것을 제 것처럼 쓰고도 미안한 줄 모르는 몰염치한 사람이었다.
② 날 :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날장작으로 불을 때니까 연기만 잔뜩 나지 않니?
③ 설 : (일부 동사 앞에 붙어) '충분하지 못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아침에 설익은 밥을 먹었더니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다.
④ 민 :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이 없음' 또는 '그것이 없는 것'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옛날에는 어린애를 민며느리 삼아서 데려다 기르기도 했다더군.
⑤ 겉 : (수량이나 정도를 추측하는 명사나 동사 앞에 붙어) 겉으로만 보아 대강 한다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 대충 겉잡아서 말하지 말고 좀 자세하게 계산해 보세요.

34. <보기>에 제시된 문장의 서술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저는 지금 멀리 갑니다.
(나) 난 오늘 낮에 친구와 함께 영화를 봤다.
(다) 엄마는 월요일마다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린다.
(라) 아까 냉동실에 넣은 물이 벌써 얼음이 되었다.

[2점]

① (가)의 '갑니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② (나)의 '봤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③ (나)의 '봤다'와 (라)의 '되었다'는 주어 이외에 다른 성분을 하나 더 꼭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다)의 '드린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가)의 '저는'과 (나)의 '난', (다)의 '엄마는', 그리고 (라)의 '물이'는 주어로서 모두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다.

35. 문장에서 일부 문장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ㄷ. 그 아이는 예쁘게 생겼다.
ㄹ. 작은 것이 아름답다.
ㅁ. 우리도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2점]

① ㄱ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야.
② 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네 개야.
③ ㄷ을 보면 부사어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④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될 수 있지만 ㄹ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
⑤ ㅁ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해.

36.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다.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그는 형과 달리 말을 잘한다.
ㄴ. 그녀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ㄷ.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2점]

① ㄱ~ㄷ은 문장 속에 문장을 안은 형태입니다.
② ㄱ~ㄷ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 속에서 하는 구실이 다릅니다.
③ ㄱ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생략된 주어는 '그는'입니다.
④ ㄴ의 밑줄 친 부분에는 '사실'이라는 체언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⑤ ㄷ의 밑줄 친 부분에는 명사형 어미가 사용되었습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사이시옷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2점]

① 사이시옷은 낱말이 합성될 때 나는 발음을 기준으로 붙이는군.
② '아랫니'와 '깻잎'은 1(3)에 의해 사이시옷이 붙은 거겠군.
③ '머릿방'과 '햇수'는 2(1)에 의해 사이시옷이 붙은 거로군.
④ '수돗물'과 '양칫물'은 2(2)에 의해 사이시옷이 붙은 거야.
⑤ '나무꾼'과 '위층'은 1, 2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군.

38.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ㄱ~ㅂ의 용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동작상'이라 한다.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된 것인지 등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진행상, 완료상 등이 있다. 국어에서는 주로 보조 용언의 일부가 동작상을 보여 주는데, 특정 어미를 통해 보여 줄 때도 있다.
ㄱ.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
ㄴ. 빨래가 다 말라 간다.
ㄷ. 그녀는 밥을 다 먹고서 집을 나섰다.
ㄹ. 자장면을 다 먹어 버렸다.
ㅁ. 지현이는 깨어 있었다.
ㅂ. 그녀는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했다.

[2점]

① ㄱ, ㅁ으로 미루어 동일한 보조 용언이라도 어떤 구성으로 쓰이느냐에 따라 표현하는 동작상이 다르다.
② ㄴ에서 '간다'는 '영이는 학교를 걸어서 간다.'의 '간다'와 동일한 동작상을 표현하고 있다.
③ ㄷ은 어미 '-고서'가 완료상을, ㅂ은 '-면서'가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다.
④ ㄷ을 '그녀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집을 나섰다.'로 바꿔 표현해도 동일한 동작상을 나타낸다.
⑤ ㄹ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자장면을 먹는 행위가 완결되었음을 나타낸다.

39. <보기>의 설명과 ㄱ~ㅁ의 용례를 바탕으로 사동 표현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동(使動) :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동작을 사동이라고 하는데, 사동 표현은 사동사를 이용해 만들 수도 있고 '-게 하다'와 같은 표현을 이용해 만들 수 있음

ㄱ. 사람들이 장마에 대비해 둑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ㄴ.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빨리 읽게 하셨다.
ㄷ. 그가 논에 쌓여 있는 건초더미를 태우고 말았다.
ㄹ.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었다.
ㅁ. 그는 생계를 위해 다섯 마리의 소를 먹이고 있다.

[2점]

① ㄱ, ㄷ, ㄹ을 통해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사동 접사와 결합해 사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ㄴ을 통해 사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에서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의 위치가 고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ㄷ의 '태우고'를 통해 두 개의 사동 접사를 하나의 동사에 결합시켜 사동사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ㄹ은 사동문이 중의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⑤ ㅁ의 '먹이다'는 사동사의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40.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에 대해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도망가던 범인이 형사에게 잡혔다.
㉡ 달리기를 하는데 운동화 끈이 풀어졌다.
㉢ 철수가 부지런히 잡초를 뽑았다.
㉣ 내 옷이 못에 걸렸다.

[2점]

① ㉠에서는 '범인'이 부각되어 있지만, 능동문으로 바꾸면 '형사'가 부각되겠지.
② ㉠의 '잡혔다'를 ㉡과 같은 방식으로 '잡혀졌다'로 고쳐 쓰면 자연스럽지 않아.
③ ㉡에서 '풀어졌다'를 '풀렸다'로 바꾸어도 여전히 피동문이야.
④ 서술어 '뽑았다' 때문에 ㉢은 피동문으로 바꾸기가 어려워.
⑤ 무엇을 주어로 삼아야 할지 애매해서 ㉣은 능동문으로 바꾸기가 곤란해.

41. <보기>와 같은 어법상 잘못이 나타나 있지 않은 문장은?

보기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안 한 것은 계속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었다.

[2점]

① 인간에 대한 개념 규정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② 연사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끝나자 청중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③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적으로 싸웠다.
④ 우리나라에는 유산을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
⑤ 학생들은 교실에서도 도서관에서처럼 조용하게 정숙을 유지하고 있었다.

42. <보기>는 문장의 부속 성분과 서술어의 자릿수를 탐구하기 위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부사어는 관형어와 마찬가지로 다른 말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사어나 관형어 같은 부속 성분은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작은 것이 아름답다.'와 같은 문장처럼 관형어 '작은'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몇몇 서술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그 녀석, 참 귀엽게 생겼네.'에서 '생기다'라는 서술어는 반드시 '-게'라는 부사어가 있어야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루기 위해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효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르다.

[가] 1. 나는 나, 너와는 많이 다르다.
2. 어머니는 그녀에게 학비를 넉넉히 주셨다.
3. 아버지는 일찍이 그녀를 수양딸로 삼으셨다.

[나] 1. 나는 나, 너와는 다르다.
2. 어머니는 그녀에게 학비를 주셨다.
3. 아버지는 그녀를 수양딸로 삼으셨다.

[2점]

① [가]와 [나]의 밑줄 친 성분은 모두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② [가]와 [나]의 '다르다', '주다', '삼다'는 모두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③ [가]의 밑줄 친 말은 생략할 수 있는데, [나]의 밑줄 친 말은 생략할 수 없다.
④ 예를 들어 '그녀는 뜻밖의 장벽과 마주쳤다.'고 할 때의 '마주치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질 때에는 [나]와 같은 필수 성분 중심의 문장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다.

4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쓰인 보조사에 대해 학습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사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격조사', 일정한 뜻을 더하는 '보조사', 두 낱말을 잇는 '접속조사'가 있다. 이 중 보조사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조사(격조사, 보조사)와 다양하게 같이 쓰기이도 한다.

ㄱ. 시골에서라도 환경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ㄴ. 여기서부터는 검문을 자주 한다.
ㄷ. 국수는 먹었지만 밥은 먹지 않았다.
ㄹ. 당신만은 끝내 의리를 지켰다.

[2점]

① ㄱ은 격조사와 보조사가 같이 쓰인 사례이다.
② ㄱ에 사용된 보조사는 '필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③ ㄴ은 격조사에 보조사가 붙고 거기에 또 보조사가 붙은 경우이다.
④ ㄷ에 사용된 보조사는 대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⑤ ㄹ은 보조사에 보조사가 잇달아 쓰인 경우이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탐구 과정과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홑문장은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가리키고, 겹문장은 두 번 이루어진 문장을 가리킨다. 겹문장에는 성분절을 안고 있는 '안은 문장', 문장과 문장이 대등적 혹은 종속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속 조사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 있다.

	예문		탐구		판단
①	철수와 영희는 골목길에서 마주쳤다.	→	'마주쳤다'를 보면 이는 혼자가 아닌 둘이 동시에 마주친 것임.	→	홑문장
②	철수는 철학책을, 영희는 소설책을 읽었다.	→	서술어가 '읽었다'로 하나임.	→	홑문장
③	철수는 그의 형과 달리 말을 잘한다.	→	철수는 그의 형과 다르다는 문장이 부사어 역할을 함.	→	(부사절을)안은 문장
④	봄이 오니 꽃이 핀다.	→	주어 -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루어졌고 종속적으로 연결됨.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⑤	○ 철수와 영희는 학생이다. ○ 철수는 영어와 독일어를 구사할 줄 안다.	→	주어 혹은 목적어가 접속 조사로 이어져 있고, 이에 대한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음.	→	접속 조사로 이어진 문장

[2점]

① ② ③ ④ ⑤

45. <보기 1>을 참고하여<보기 2>의 (가)~(마)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발화 주체나 행위 주체의 감정, 판단, 느낌, 심리, 태도, 상태 등도 함께 전달한다. 이를 다루는 문법 범주를 양태 또는 양태 서법이라고 하는데, 양태는 어미나 조사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으나 단어나 어순 등을 통해 표현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실현된다.

보기2

(가) A : 김 과장님 부산에 도착했을까?
B : 도착하셨을걸. 오전에 떠난다고 연락이 왔었거든.
(나) A : 요새 잘 안 보이던데, 어디 다녀왔어?
B : 응, 잠깐 휴가 다녀왔어. 그동안 별일 없었지?
A : 응, 그랬구나. 난 또 회사를 옮겼나 그랬어.
(다) A : 그 실력을 가지고 철수가 과연 취직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라) A : 오늘 점심에는 뭘 먹을 거야?
B : 점심에는 자장면이나 먹어야겠어.
(마) A :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이?

[2점]

① ① (가)에서 어미 '-을걸'은 B가 김 과장이 부산에 도착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로군.
② (나)에서는 어미 '-구나'를 통해 A가 B가 휴가 다녀온 것을 모르고 있었다가 비로소 알게 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③ (다)는 부사어인 '과연'과 의문형 어미인 '-을까'를 통해 A가 철수가 취직 시험에 합격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군.
④ (라)는 조사 '이나'를 사용해 B가 현재 상황에서 자장면을 점심으로 가장 좋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군.
⑤ (마)에서는 어미 '-다고'를 사용하고 어순을 바꿈으로써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A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46. <보기>를 참고로 하여 관련되는 문장을 제시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휘의 → + 새로운 어구/어절 → 어휘의 → 언중들의 관습적

(예) 이 + 악물다 → 이를 악물다(힘에 겨운 난관을 헤쳐 나가려고 비상한 결심을 하다.)

[2점]

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좋지 않을까?
② 오늘따라 아빠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서 기분이 좀 우울하게 느껴졌다.
③ TV 화면에 나온 난민 수용소 아이들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아려왔다.
④ 그는 한줌에 많은 양의 물건을 잡을 정도로 손이 커서 일하는 데 유리하다.
⑤ 요즘 집안이 어려워진 그는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근근이 목구멍에 풀칠하며 산다.

47. <보기>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선어말 어미이다.<보기>를 바탕으로 선어말 어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벌써 꽃이 피었다.
형님께서 오시는구나.
내일이면 그가 오겠다.
형님께서 직접 잡으셨다.
아버님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2점]

① 상대를 직접 높일 때 선어말 어미가 쓰인다.
② 선어말 어미는 항상 종결 어미 앞에 위치한다.
③ 공손한 뜻을 나타낼 때도 선어말 어미가 쓰인다.
④ 문장의 시제를 나타낼 때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다.
⑤ 선어말 어미가 결합될 때는 음절이 줄어들기도 한다.

48. <보기 1>을 참조할 때,<보기 2>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1) 관형어의 개념 : '관형어'는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으로서 문장에서 '어떠한 / 무엇의'의 뜻으로 쓰이고, 체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기능을 한다.
(2) 관형어의 성립과 쓰임
가.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 관형어가 된다. 다만, '의' 없이도 관형어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나. 관형사는 그대로 관형어가 된다.
다.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는', '-ㄹ', '-던'이 붙어 관형어가 된다.
라. 관형어는 체언 앞에 놓이며 단독으로 쓰이지 못한다.

보기2

○ ㉠자라나는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다.
○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바란다.
○ 오늘 따라 ㉤봄의 하늘이 ㉥고운 비취색 같았다.
○ 신입생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입학식을 했다.

[2점]

① ㉠은 관형사형 어미, ㉡은 관형격 조사가 붙어 성립된 관형어로군.
② ㉢과 ㉣에서는 관형격 조사를 생략해도 관형어가 성립되겠군.
③ ㉤은 ㉠과 마찬가지로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성립된 관형어군.
④ ㉥은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서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군.
⑤ ㉦은 '운동화'와 같은 체언 없이 쓰이지 못할뿐더러 그 체언과 위치를 바꾸면 안 되겠군.

49. <보기 1>을 참고하여<보기 2>의 사례를 탐구한 내용 중,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1

우리말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의 세 가지가 있다. 주체 높임법은 문장 안의 주체가 말하는 이보다 높은 사람일 경우, 말하는 이가 그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주체 높임의 경우, 주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법과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말을 높이는 간접 높임법이 있다.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난 대상을 높이는 경우에 사용한다. 상대 높임법은 말을 듣는 청자를 높이는 것이다.

보기2

(1) 선생님께서 오신다.
(2) 제가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3) 어머니, 아버지께서 오십니다. / 할머니, 아버지가 왔습니다.
(4) 선생님께서 손수 진지를 해 잡수신다.
(5) 아버지께서 집에 계신다. /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2점]

① 주체보다 청자가 높은 경우에는 주체 높임을 쓰지 않는다.
② 주체 높임법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한다.
③ '있다'의 높임말로 쓰인 '계시다'와 '있으시다'는 그 용법이 다르다.
④ 부사어로 나타난 대상을 높이는 경우에는 높임의 의미를 지닌 명사를 사용한다.
⑤ 말을 듣는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은 '-ㄴ다'나 '-니다' 등의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50. <보기>의 예문을 통해 청유문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ㄱ. 우리 함께 신나게 놀자. / 함께 신나게 놀자.
ㄴ. 우리 함께 오늘부터 *예쁘자.
ㄷ.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 봅시다. / 함께 신나게 놀아 봅시다.
ㄹ. 우리 함께 신나게 놀자고 제안했다.
ㅁ.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았자 / *놀겠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2점]

① ㄱ, ㄴ을 보니, 청유문에서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쓸 수 없어.
② ㄱ, ㄷ을 보니, 청유문에서는 주어를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별 문제가 없어.
③ ㄱ, ㅁ을 보니, 청유문에서는 시간 표현에 제약이 있어.
④ ㄱ, ㄹ을 보니, 청유문의 화자와 청자는 서로 대등한 관계여야 하는군.
⑤ ㄷ, ㄹ을 보니, 청유문이 간접 인용될 때에는 종결 어미가 바뀌는 경우도 있군.

51. <보기 1>`에서 설명한 '상대적 시제'가 나타나 있는 것을<보기 2>`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1

'나영이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태호를 멀거니 쳐다보았다.'라는 문장에는 두 가지 시제가 들어 있다. 문장 전체의 절대적 시제는 과거이다. 그런데 문장 속에 '지나가는'이라는 현재 시제가 하나 더 있다. 이것은 과거 속의 현재가 되는데, 이런 것을 '상대적 시제'라고 한다.

보기2

㉠ 저 생선은 비린내가 몹시 심하게 난다.
㉡ 갈증 때문에 그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었다.
㉢ 안개로 인해 배가 암초에 걸리고 말았다.
㉣ 소녀들의 화사한 옷차림에 기분이 좋아졌다.

[2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52. 다음은<보기>의 설명을 위해 각 조항의 예를 든 것이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가. 부사어는 그것이 한정하는 말 바로 앞에 오는 것이 원칙이다.
나. 부사어는 표현 효과를 위해 자리바꿈을 하여 여러 자리에서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의 꾸밈을 받는 말 뒤에도 올 수 있다.
다. 다만 부정 부사 [아니(안), 못] 그리고 성분 부사 중에서 [잘, 좀…] 같이 자리바꿈을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서술어 앞에만 쓰인다.
라. 부사어가 다른 부사어나 관형어, 체언을 한정할 때는 자리바꿈이 되지 않는다.
마. 부사어는 앞에 문맥이 주어져 있으면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2점]

① 가 - 김 선생님께서는 철수는 무척 사랑하셨다.
② 나 - 김 선생님께서는 무척 철수를 사랑하셨다.
③ 다 - 그는 밥을 안 먹었습니다.(○) / 그는 안 밥을 먹었습니다.()
④ 라 - 눈이 아주 많이 왔어.
⑤ 마 - 어제 눈이 많이 왔지? / 아니, 조금.

53. <보기>는 '두음 법칙'과 관련한 규정이다. 이 규정이 적용된 단어와 그 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 규정 제11항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규정 제13항
ⓐ 한 단어로 된 한자 첩어에서 소리가 겹쳐 나는 '연연-', '유유-', '누누-'는 두음 법칙에 따라 같은 글자로 적되, 그 밖의 것은 제2음절 이하에서 본음대로 적는다.
ⓑ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붙어서 된 말이나,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의 단어에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2점]

① 유유상종이라고 하더니 고만고만한 녀석들끼리 모였다. - ⓐ
② 그렇게 누누이 타일렀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다니. - ⓐ
③ 소녀의 낭낭한 맑은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 ⓐ
④ 정치인들의 예술에 대한 몰이해로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 ⓑ
⑤ 은행의 정기 예금 연이율이 4%대로 떨어졌다. - ⓑ

54. 수행 평가 과제로 조사 '-로'의 용법을 조사하였다. 용법과 용례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로 :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쓰이는 부사격 조사

[2점]

① ㉠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격조사 : 진눈깨비가 비로 변하였다.
② ㉡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격조사 : 사장은 간부들을 회의실로 불렀다.
③ ㉢ 어떤 일의 수단, 도구를 나타내는 격조사 : 이번 방학에는 기차로 외가에 갈 계획이다.
④ ㉣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격조사 : 그 사람은 퇴근 후에도 회사 일로 바쁘다.
⑤ ㉤ 시간을 나타내는 격조사 : 자동차 면허 시험을 보는 것이 오늘로 세 번째이다.

55. 밑줄 친 것 중,<보기>의 ㉠을 설명하기에 알맞은 것은?

보기

형태소 가운데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형태소가 주위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을 변이 형태라고 한다. 의미와 기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다만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규칙적으로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운론적 변이 형태'라고 한다. '막아/먹어'의 연결 어미 '아/어'도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솟아라/뛰어라/오너라'를 비교하면 '오다'라는 용언의 경우에는 '아라'/'어라'가 올 자리에 특이하게 '너라'가 결합되는데, '오'라는 형태소만 '너라'가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변이 형태를 ㉠'형태론적 변이 형태'라고 한다

.

[2점]

① 너에게도 잘못은 있다.
낭은 만두는 포장해 주세요.

② 철수와 영희가 함께 소풍을 갔다.
장미꽃과 국화꽃을 한 다발씩 사왔다.

③ 열심히 노력하여 소망을 이루자.
어제는 잠시도 쉬어 본 적이 없다.

④ 구름이 노을에 젖어 있었다.
털보네가 이사간 곳을 아무도 몰랐다.

⑤ 조금 전에 밥을 먹었다.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56. 보기>는 문장의 부속 성분과 서술어의 자릿수를 탐구하기 위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부사어는 관형어와 마찬가지로 다른 말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사어나 관형어 같은 부속 성분은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작은 것이 아름답다.'와 같은 문장처럼 관형어 '작은'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몇몇 서술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그 녀석, 참 귀엽게 생겼네.'에서 '생기다'라는 서술어는 반드시 '-게'라는 부사어가 있어야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루기 위해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효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르다.
[가] 1. 나는 나, 너와는 많이 다르다.
2. 어머니는 그녀에게 학비를 넉넉히 주셨다.
3. 아버지는 일찍이 그녀를 수양딸로 삼으셨다.

[나] 1. 나는 나, 너와는 다르다.
2. 어머니는 그녀에게 학비를 주셨다.
3. 아버지는 그녀를 수양딸로 삼으셨다.

[2점]

① [가]와 [나]의 밑줄 친 성분은 모두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② [가]와 [나]의 '다르다', '주다', '삼다'는 모두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③ [가]의 밑줄 친 말은 생략할 수 있는데, [나]의 밑줄 친 말은 생략할 수 없다.
④ 예를 들어 '그녀는 뜻밖의 장벽과 마주쳤다.'고 할 때의 '마주치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질 때에는 [나]와 같은 필수 성분 중심의 문장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다.

57. <보기>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잘못 수행한 것은?

보기

선생님 : 오늘은 한자어 '간(間)'의 쓰임을 알아보겠습니다. '간(間)'은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접미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앞 말과 띄어 써야 하며, 접미사로 쓰이면서 파생어를 만들 때에는 앞 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다음 설명을 참조하여 아래의 ㉠~㉤에 사용된 용례를 설명해 보세요.

[의존 명사]
○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 (예) 서울과 부산 간 야간열차 ……
○ '관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아버지와 아들 간, 한일 간의 갈등……
단,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관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라도 서로 붙여 쓴다.
(예) 형제간, 고부간, 부자간 ……

[접미사]
○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조만간, 한 달간, 얼마간……
○ ('집'과 관련된 명사 뒤에 붙어) '장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대장간, 외양간, 푸줏간 ……

㉠ 이틀간 자는 내내 꿈만 꾸었어.
㉡ 부부간의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잖아.
㉢ 곳간에서 인심 난다더니 꼭 맞는 말이네.
㉣ 강북과 강남 간의 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80일 간의 세계 일주'이다.

[2점]

① ㉠의 '이틀간'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에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예요.
② ㉡의 '부부간'의 '-간'은 명사 뒤에 붙여 썼으므로 접미사로 보아야 해요.
③ ㉢의 '곳간'에서 '-간'은 집과 관련된 명사 뒤에 붙어 '장소'의 의미를 더하고 있어요.
④ ㉣의 '간'은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라는 의미를 지닌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맞아요.
⑤ ㉤의 '80일 간'의 '간'은 '동안'의 의미이므로 붙여 써야 해요.

58. <보기>는 띄어쓰기 규정에서 틀리기 쉬운 항목을 발췌한 것이다. 이들 규정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ㄱ.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ㄴ.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는 띄어 쓴다.
ㄷ. 합성어나 파생어는 한 덩어리가 되게 붙여 쓴다.

[2점]

① 학생들은 약간 기가 질려서 눈만 말똥거릴 뿐 대뜸 반응은 없다.
② 판사로 명성을 떨친 그는 시골 출신이지만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다.
③ 나는 고개를 힘껏 숙이고 주먹으로 자꾸 샘솟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걸었다.
④ 환경 보호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자원 절약 정신을 학교 및 가정,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⑤ 눈발이라곤 비치지 않은 채 계속되는 강추위! 마을 사람들은 다음 농사가 흉년이 들 조짐이라고 걱정했다.

59. <보기>의 설명으로 보아 표현이 적절한 것은?

보기

ㄱ. '우린 조국 위해 죽음 두려워 안 해.'
ㄴ. '1학기 수시 입시는 바람직 안 해.'
ㄷ. '통일부 장관 6자 회담 포기 안 해.'

ㄱ, ㄴ과 같은 신문 기사 제목을 더러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틀린 표현이다. '두려워 안 해'는 '두려워해'라는 한 단어를 쪼개어 그 사이에 부정어 '안'을 끼워 넣은 형태인데, 이것은 쪼갤 수 없는 단위를 분리한 것이므로 문법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을 바르게 쓰려면 '두려워하지 않아'로 해야 한다. '바람직 안 해'도 마찬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아'로 표기해야 한다.
'○○하다'는 한 단어이다. 이를 쪼개려면 조사 '을/를'을 붙여 '○○을/를 하다'로 쓸 수밖에 없다. '공부하다', '운동하다'는 '공부를 하다', '운동을 하다'로 쓸 수 있으며, 이를 부정하면 '공부를 안 하다', '운동을 안 하다'가 된다. 이렇게 보면 ㄷ의 '포기 안 해'는 올바른 표기이다. '포기' 뒤에 '를'이 생략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점]

① '……경솔(輕率) 안 해'
② '……고마워 안 해'
③ '……솔직(率直) 안 해'
④ '……수입(輸入) 안 해'
⑤ '……부지런 안 해'

60. <보기>는 '두음 법칙'과 관련한 규정이다. 이 규정이 적용된 단어와 그 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한글 맞춤법 규정 제11항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한글 맞춤법 규정 제13항
ⓐ 한 단어로 된 한자 첩어에서 소리가 겹쳐 나는 '연연-', '유유-', '누누-'는 두음 법칙에 따라 같은 글자로 적되, 그 밖의 것은 제2음절 이하에서 본음대로 적는다.
ⓑ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붙어서 된 말이나,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의 단어에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2점]

① 유유상종이라고 하더니 고만고만한 녀석들끼리 모였다 - ⓐ
② 그렇게 누누이 타일렀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다니. - ⓐ
③ 소녀의 낭낭한 맑은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 ⓐ
④ 정치인들의 예술에 대한 올이해로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 ⓑ
⑤ 은행의 정기 예금 연이율이 4%대로 떨어졌다. - ⓑ

61. <보기>의 밑줄 친 유형의 오류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라는 노래 가사가 있다. 그런데 이 노랫말에 보이는 '거칠은'이란 표기는 어법을 고려하면 '거친'으로 써야 한다. 우리말은 어간의 끝소리가 'ㄹ'일 경우 'ㄴ, ㅂ, 오, 시' 앞에서 'ㄹ'이 탈락한다. '거칠다'의 경우 어간 '거칠-'에서 'ㄹ'이 탈락해 '거친, 거칩니다, 거치오, 거치시오'와 같이 된다. 따라서 '거칠은 들판'이 아니라 '거친 들판'으로 표기하는 게 바르다. 마찬가지로 '불쑥 내밀은 손', '노랗게 물들은 은행잎', '시들은 꽃잎' 등도 모두 틀린 표기이다. 어간의 끝소리인 'ㄹ'이 탈락해 줄어든 형태대로 써야 하는데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으'를 습관적으로 붙이다 보니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관형형 어미 'ㄴ'을 붙여 활용할 때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유의해야 한다.

[2점]

① 그녀는 녹슬은 기찻길을 걸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았다.
② 여행길에 나선 그들은 부풀은 꿈을 안고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③ 기자에게 우리가 패배할 것으로 보이느냐고 되물은 적이 있다.
④ 저물녘에 돌아온 아이들도 진흙탕에서 뒹굴은 흔적이 역력했다.
⑤ 성우 하면 '낯익은 소리, 낯설은 얼굴'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62. <자료 1>을 바탕으로<자료 2>의 ㉮~㉰를 연결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료1

■듣다 : 귀로 소리를 느끼다.
듣다 : 약 따위가 효험을 나타내다.
⋮
■들다 : 물건을 위로 올리다.
들다 : 몸에 귀신이 붙거나 병이 생기다.
⋮
■'들리다'의 의미 범주

■피동 : 주어가 남의 행동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
기본 형성 방법 : 어근 + 이, 히, 리, 기
(예) 보다 → 보이다
■사동 :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기본 형성 방법 : 어근 + 이, 히, 리, 기, 우, 구,추
(예) 읽다 → 읽히다

자료2

이번 야구 최종 평가전에서 승리의 팡파르 음악이 ㉮들리자, 승리의 깃발을 동료 선수에게 ㉯들리고 함께 뛰어 가던 중에 내 몸이 동료들에 의해 번쩍 ㉰들리는 것을 느꼈다.

㉮ ㉯ ㉰

[2점]

① '듣다'의 피동 '들다'의 피동 '들다'의 피동
② '듣다'의 피동 '들다'의 피동 '들다'의 사동
③ '듣다'의 피동 '들다'의 사동 '들다'의 피동
④ '듣다'의 사동 '들다'의 피동 '들다'의 피동
⑤ '듣다'의 사동 '들다'의 피동 '들다'의 사동

63. <보기>의 설명에 덧붙일 수 있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너 누구 닮았니?"
"저는 엄마를 닮았어요."
이 대화에서 '닮았어요'에 나타난 시간 표현은 단순히 과거 시제로만 보기 어렵다. 과거에도 닮았고 지금도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간 표현에는 어떤 일이 실현될 것을 인식하거나 실현된 것을 인식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2점]

① [남학생 1 : 애들 다 모였니?
남학생 2 : 우대는 벌써 왔고, 경수는 지금 <u>왔어</u>.]

② [교사 :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니?
학생 : 많이 <u>늦었네요</u>. 정말 죄송합니다.]

③ [딸 : 오늘 비 온대요?
아버지 : 많이 <u>온다더라</u>. 잊지 말고 우산 꼭 챙겨 가지고 가.]

④ [사원 1 :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했는데 어쩌지.
사원 2 : 조금 있다 과장님 들어오시면 자넨 <u>혼났다</u>.]

⑤ [아들 : 어이참, 좀 봐워 주지 그랬어요. 또 지각이네.
어머니 : 허구한 날 늦잠을 자면 어떡해. 그래 가지고 대학은 다 <u>갔다</u>.]

64. 다음 중 고쳐 쓸 필요가 <u>없는</u> 표현은?

[2점]

① 경제 위기를 맞아 <u>내노라하는</u> 재계의 인사들이 한곳에 모였다.
② 나라에 변고가 있으려고 그러는지 먼 하늘에서 <u>우뢰가</u> 울려왔다.
③ 점심밥을 나르다가 논둑 길에 미끄러져 와장창 그릇들을 <u>깨트렸다.</u>
④ 그가 지난해에 출간한 책을 보면 <u>머릿말</u>이 매우 감명 깊게 쓰여 있다.
⑤ 요즘 살림이 어려워 바지의 해어진 부분에 <u>짜집기</u>를 하여 그냥 입었다.

65. <보기>에서 지적한 어법상 오류를 범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허우대'라는 낱말은 '겉모양이 좋고 큰 체격'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그 남자는 허우대가 좋아.'라고 말을 하면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허우대'에 이미 '좋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으므로 의미의 중복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때는 그냥 '그 남자는 허우대가 있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남자는 체격이 좋아.'라고 해야 한다.

[2점]

① 어제 영화관에서 우연치 않게 선영이를 만났어.
② 돌이켜 회고해 보면 지난 1년은 다사다난했다.
③ 올해 나온 햅쌀로 지은 밥이라 그런지 밥맛이 좋다.
④ 개인과 사회가 부딪치는 일은 허다히 많은 사례가 있다.
⑤ 우리 가족은 형극의 가시밭길을 걸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

66. <보기1>을 바탕으로<보기2>에 대해 탐구한 내용 중, 바르지 <u>않은</u> 것은?

<보기1>

: 한 주체가 하는 두 가지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 -고/고서 : 둘 이상의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의 나열이나 선후를 나타냄.
• -며/면서 : 둘 이상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냄.

<보기2>

ㄱ. 관청집에 가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다.
ㄴ. 친구 집에 가서 듯 다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서 왔다.
ㄷ. 남루 아파서 울음 울며/울면서 왔다.
ㄹ. 아이들은 함께 놀고, 공부도 함께 하며, 잠도 함께 잔다.

[2점]

① ㄱ의 '-고'는 두 동작을 나열할 경우에 사용하는군.
② ㄴ의 '-고서'에는 동작의 선후가 나타나는군.
③ ㄱ, ㄴ의 '-고/고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군.
④ ㄷ은 '-며'를 쓸 자리에 '-면서'를 쓰더라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군.
⑤ ㄹ의 '-고'와 '-며'는 셋 이상의 동작을 나열하는 경우 모두 동시성을 나타내고 있군.

67. <보기>를 이용하여 '-겠-'의 쓰임에 대해 설명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ㄱ. 약속 시간에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ㄴ.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ㄷ. 집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겠구나.
ㄹ. 그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선생님은 안심하고 계셨겠다.

[2점]

① ㄱ의 '-겠-'은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
② ㄴ의 '-겠-'은 '가능'의 의미를 나타낸다.
③ ㄷ과 ㄹ의 '-겠-'에는 '추측'의 의미가 들어 있다.
④ ㄱ~ㄹ로 보아 '-겠-'은 '미래'의 시제를 나타낸다.
⑤ ㄱ~ㄹ로 볼 때, '-겠-'은 어간 뒤에 붙는 어미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68. <보기>의 내용을 참고로 할 때, 밑줄 친 어휘 중 <u>잘못</u> 사용된 어휘는?

보기

'되다'의 어간인 '되-'가 '-어'와 결합하면 '되어'가 되고, 그것이 줄어들면 '돼'가 된다. 예를 들면, '되-'+'-어서'는 '되어서'가 되고 그것이 줄어서 '돼서'가 된다. 그런데 '되-'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합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돼'로 줄지 않는다.

[2점]

① 너는 자라서 꼭 네가 바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돼라!
② 저는 나중에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어요.
③ 너의 지금 행동을 볼 때, 어찌 네가 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니?
④ 우리말의 보어는 특정한 어휘 - '보다, '아니다' - 앞에서만 사용되야 한다.
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겨우 그 정도의 점수밖에 못 받다니 참 안됐네
.

69. <보기 2>의 설명에 따를 때,<보기 1>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보기1

내 과거는 안 자랑스럽다.

보기2

국어의 부정법은 실현된 문장의 길이에 따라 '단형 부정법'과 '장형 부정법'으로 나눈다. 이는 부정소가 본용언의 어간에 어미 '-지'가 결합한 형태 뒤에 오면 장형 부정이고, 본용언 앞에 오면 단형 부정이다. 언어 경제 현상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형 부정'으로 표현하다 보니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잘못된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안 자랑스럽다'의 경우에는 단형 부정이 자연스럽지 않은 접미사인 '-스럽다'가 결합된 용언으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접미사의 연결에 따라 단형 부정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2점]

① 여기는 안 깨끗하다.
② 나는 기분이 안 좋다.
③ 나는 용돈이 안 필요하다.
④ 신부가 별로 안 아름답다.
⑤ 나는 아침에 고기를 안 먹는다.

70. <보기>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글 맞춤법에 대해 묻고 답한 내용이다.<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질문 : 지하철에서'자랑스런 우리의 모습 자동차 생산 세계 5위'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태인'부끄럽다'는'부끄러운'으로 쓰고 있습니다.'자랑스런'과'자랑스러운'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답변 : 자랑스럽다'나'부끄럽다'나 모두'ㅂ'불규칙 용언입니다. 따라서 관형형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ㅂ'이'ㅜ'로 바뀌어 '자랑스러운, 부끄러운'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이나'부끄러운'이 줄면'자랑스런, 부끄런'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에서는'ㅂ'불규칙 용언에서의'ㅂ'이 바뀐 'ㅜ'가 그 앞의 모음과 어울려 줄어드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합성어에서 이런 준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군고구마, 군밤'이 그런 예입니다. 여기에서 '군'은 '굽다'의 활용형 '구운'이 줄어서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준말이 인정되는 것은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실제 대화에서'ㅂ'불규칙 용언의 관형형이'자랑스런, 부끄런'처럼 줄어드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ㅂ'불규칙 용언의 관형형을 줄여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점]

① '자랑스러운'이 언어 현실에도 맞고 맞춤법에도 맞는 표현임을 알 수 있어.
② 구운 감자, 구운 조개'를 '군감자, 군조개'로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군.
③ 어간 말음에 'ㅂ'이 있는 '잡다, 뽑다' 등은 '부끄러운'과 달리 규칙적으로 활용하는군.
④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의 일부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⑤ '시끄럽다, 촌스럽다' 같은 말은 '부끄럽다'와 달리 '시끄런, 촌스런' 등으로 쓸 수 있겠군.

71. <보기1>을<보기2>와 같이 분류했다고 할 때, ⓐ~ⓕ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1

ㄱ.{따르-, 흐르…} +{-아/어-} → {따라/흘러…}
ㄴ.{가-, 자-, 일어나- …} + {라/-거라/너라} → {가거라/자거라/일어나거라…}
ㄷ.먹는다[멍는다], 부엌문[부엉문]
ㄹ.이리 {*주라 / 다오.}
ㅁ.그녀는 {*안 아름답다 / 아름답지 않다.}
ㅂ.그를 사랑하지 {*않아라 / 말아라.}

보기2

Ⅰ.	불규칙성 알아보기 (규칙에서 어긋난 활용을 하는 경우)	Ⅱ.	선택 제약성 알아보기(문법 요소를 선택할 때 특정의 문법 요소만을 취하는 경우)
ㄱ:	'따르다'와 달리 '흐르다'는 '으'가 탈락하고 동시에 'ㄹ'이 덧생기는 '르' 불규칙이다.‥‥ⓐ	ㄴ:	'가다, 자다, 일어나다' 등은 명령형 어미 '-라'가 아닌 '-거라'를 취한다.‥‥ⓓ
ㄷ:	'ㄱ, ㅋ' 소리가 'ㄴ, ㄹ, ㅁ' 위에서 'ㅇ' 소리로 변한다.‥‥ⓑ	ㅁ:	긴 음절의 서술어를 부정할 경우는 대개 긴 부정문 형태가 어울린다.‥ⓔ

ㄹ:	'주다'가 '자기에게 건네다'의 의미일 경우 해라체와 하오체에서는 '이리 달라/다오'가 된다. ·····ⓒ	ㅂ: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는 '안' 부정문보다는 '말아라'와 같은 형태가 온다. ·····ⓕ

[2점]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72.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에'와 '에서'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사람들이 하나둘 공원㉠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공원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잔디㉢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음악소리가 나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곳㉤에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2점]

① ㉠은 '모여들다'의 목표 지점을 나타내는군.
② ㉡, ㉢은 상태의 지속을 뜻하는 서술어와 함께 쓰였군.
③ ㉡, ㉢과 달리 ㉣은 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사용되었군.
④ ㉤은 접근의 의미를, ㉥은 이탈의 의미를 나타내는군.
⑤ ㉦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장소를 뜻하는군.

73. <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표준어 규정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 1]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수캉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퇘지, 수평아리
ㄴ. 숫강아지, 숫개, 숫것, 숫기와, 숫닭, 숫당나귀, 숫돌쩌귀, 숫돼지, 숫병아리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숫양, 숫염소, 숫쥐
ㄴ. 수양, 수염소, 수쥐

[2점]

① '숫놈, 숫나사, 숫은행나무'를 표준어로 고치면 '수놈, 수나사, 수은행나무'가 되겠군.
② [다만 1]의 규정에 의해 '암캉아지, 암캐, 암컷, 암탉' 등도 표준어라고 볼 수 있겠군.
③ [다만 1]은 '암, 수' 뒤에 'ㄱ, ㄷ, ㅂ'가 이어지는 경우로 일반화해서 기억하면 돼.
④ [다만 2]에 나오는 단어인 '양, 염소, 쥐'에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표준어는 '암양, 암염소, 암쥐'가 되겠군.
⑤ '수영양'은 [다만 2]에 '숫-'이 결합되는 것으로 제시된 단어가 아니므로 '숫영양'이 아닌 '수영양'이 표준어야.

74. 표준어 규정에 맞도록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해방이 되어서도 가였은 누이의 소식은 아직 감감소식이다.
가였은(X) → 가여운(○) / 감감소식(X) → 감감무소식(○)
② 나지막한 소리로 들려오는 여인의 노랫가락과 함께 노을이 물들고 있다.
나지막한(X) → 나즈막한(○) / 노랫가락(X) → 노래가락(○)
③ 건너마을 최 진사 댁에는 볼 때마다 내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셋째 따님이 있다.
건너마을(X) → 건넛마을(○) / 설레이게(X) → 설레게(○)
④ 웅이 아버지는 낮에 참았던 일에 별안간 감정이 북받치며 참으로 안절부절못하였다.
북받치며(X) → 복받치며(○) / 안절부절못하였다(X) → 안절부절하였다(○)
⑤ 그는 잊힌 그 날의 일을 떠올리게 하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연거푸 고개를 주억거렸다.
잊힌(X) → 잊혀진(○) / 연거푸(X) → 연거퍼(○)

7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사용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부사어는 용언을 비롯해 관형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부속성분으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쓰이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사어들 중에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것도 있다. 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2점]

① 영현이는 어머니와 꼭 닮았다.
② 철수는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생겼다.
③ 아버지는 그 아이를 수양딸로 삼으셨다.
④ 모름지기 젊은이는 큰 포부를 지녀야 한다.
⑤ 자연에 동화되어 사는 시간도 때론 필요하다.

76. <보기>는 '자음 동화'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참조할 때, 밑줄 친 어휘의 발음이 올바른 것은?

<보기>

자음 동화는 앞 자음이 뒤 자음에 동화되거나 뒤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되면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동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의적이다. 따라서 자음 동화에 따른 발음들에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ㄷ→ㄱ', 'ㅂ→ㄱ', 'ㄴ→ㅇ', 'ㅁ→ㅇ' 등의 동화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이다.

[2점]

① 혼자 지낼 때에는 무엇보다 <u>건강</u>에 유의해야 해. → [겅강]
② 환절기에는 <u>감기</u>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지곤 합니다. → [강기]
③ 송충이가 <u>솔잎</u>을 안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마련이다. → [솔립]
④ 이제 그 일은 운명에 <u>맡기고</u>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 [막끼고]
⑤ 힘 있는 사람들이 <u>밥그릇</u>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 [박끄?]

77. <보기>의 표준어 규정을 바탕으로 탐구 학습을 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냉이	나이	냄비	남비

[붙임]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미장이	미쟁이	멋쟁이	멋장이

[2점]

① '시골나기'나 '풋나기' 같은 말은 '시골내기'와 '풋내기'로 고쳐 써야 하겠어.
② '아지랭이'로 발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표준어는 '아지랑이'로 정해져 있겠군.
③ '냄비'는 원래 '남비'였는데 발음의 변화가 일어난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로군.
④ '유기장이' 같은 경우에도 기술자이니까 '-장이'가 붙은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로군.
⑤ '멋장이' 대신 '멋쟁이'를 표준어로 정한 것은 어원에 가까운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원칙 때문이군.

78. <보기>는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된 설명 중 일부이다. 이를 적용하여 잘못 쓰인 표기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 외래어의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적는다.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ʃ]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서 '샤, 셔, 셰, 쇼, 슈, 시'로 적으며, 어말에서는 '시'로, 자음 앞에서는 '슈'로 적는다.
㉱ 파찰음 표기에서는 '죠, 쟈, 쥬, 져, 초, 챠, 츄, 쳐'와 같은 이중 모음 표기를 하지 않는다.

[2점]

① 잘못 쓰인 표기 : 뻐스
적용 규정 : ㉯
수정 방향 : 버스
② 잘못 쓰인 표기 : 슈퍼마켙
적용 규정 : ㉮, ㉰
수정 방향 : 수퍼마켇
③ 잘못 쓰인 표기 : 쥬스
적용 규정 : ㉱
수정 방향 : 주스
④ 잘못 쓰인 표기 : 플래쉬
적용 규정 : ㉰
수정 방향 : 플래시
⑤ 잘못 쓰인 표기 : 쵸콜릴
적용 규정 : ㉮, ㉱
수정 방향 : 초콜릿

79.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학습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물음표(?) :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낸다.
(1) 직접 질문할 때에 쓴다.....㉠
(2) 반어나 수사 의문(修辭疑問)을 나타낼 때 쓴다.....㉡
(3) 특정한 어구 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의심이나 빈정거림, 비웃음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소괄호 안에 쓴다.....㉢
[붙임 1] 한 문장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겹쳤을 때에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지만, 각각 독립된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마다 쓴다.....㉣
[붙임 2]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물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2점]

① ㉠의 예로는 직접 질문하는 말인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오니?'를 들 수 있다.
② ㉡의 예로는 진짜 묻는 말이 아닌 '제가 감히 거역할 리가 있습니까?'를 들 수 있다.
③ ㉢의 예로는 적절한 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집 고양이가 가출(?)을 했어요.'를 들 수 있다.
④ ㉣의 예에는 '아무도 그 일에 찬성하지 않을 거야. 혹 미친 사람이면 모를까?`'를 들 수 있다.
⑤ ㉤의 경우에는 의문의 정도가 약한 '이 일을 도대체 어쩐단 말이냐.' 정도를 예로 들 수 있다.

80. <보기>의 내용에 대해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의미에 따라		길이에 따라	
의지 부정	능력 부정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안' 사용'	'못' 사용	'안, 못' 사용	'아니하다, 못하다' 사용 '말다(마/마라, 말자)' 사용

(ㄱ) 그녀는 추어탕을 못 먹는다.
(ㄴ) 아무도 그녀를 얕보지 않는다.
(ㄷ) 너무 내놓고 기뻐하지는 말자.

[2점]

① (ㄱ)에서 '못'을 '안'으로 바꾸면 자신의 뜻에 의한 행위임이 드러난다.
② (ㄱ)을 '먹지 못한다.'로 바꾸면 긴 부정문이 된다.
③ (ㄴ)을 짧은 부정문으로 바꾸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④ (ㄴ)을 '못' 부정문으로 바꾸면 부정의 정도가 더 강해진다.
⑤ (ㄷ)으로 미루어 볼 때 '`말자'는 청유문의 긴 부정문에서 '아니하다, 못하다' 대신 사용될 수 있는 말이다.

81.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보 기>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나는 ㉢그쪽에서 ㉣우리 아버지의 객을 맡아 주었으면 해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객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 ㉦당신에게 그 객을 맡기시려는 것을 보니 당신을 무척 믿으시는 것 같아요.

[2점]

① ㉠과 ㉡을 비교해 보니 ㉠은 '나의'를 줄인 말이겠군.
②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③ ㉣은 ㉡과 ㉢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야.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야 해.
⑤ ㉥은 높임법에 맞지 않으니 '자기'로 바꿔야 해.

82. <보기>는 '오', '요'를 구별하기 위해 전자 사전에서 찾은 내용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오

[어미] ('이다', '아니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하오'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 문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따님이 참 예쁘오. / 얼마나 심려가 크시오? 요

[조사] ① (주로 '해'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나 일부 '하게'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대에게는 잘 쓰지 않는다.
돈이 없어요. / 기차가 참 빨리 가지요.
②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따위의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렇게 해 주시기만 하면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

[어미]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
이것은 말이요, 저것은 소요, 또 그것은 돼지이다.

[2점]

① '마음은요 더없이 좋아요.'에서 '요'는 모두 보조사로 쓰인 예로군.
② '잠이 안 오는 걸요.'에서 '요'는 청자에 대한 존대의 뜻을 담고 있군.
③ '우리는 친구가 아니요, 형제랍니다.'에서 '요'는 연결 어미이기 때문에 '고'로 바꾸어 써도 될 것 같아.
④ '부모님이 기다릴 테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오.'에서 '오'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였군.
⑤ 종결 어미로 사용되는 '오'는 '이리로 오시오.'의 경우처럼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으면 '요'로 적어
야 해.

83. <보기>의 설명에 근거할 때, ⓐ와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두 개 이상의 동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통사적 합성 동사와 ⓑ비통사적 합성 동사로 구분할 수 있다. 통사적 합성 동사는 두 개의 동사로 분리될 수 있다. 가령 '누구를 만났는지를 캐어묻다.'에서 '캐어묻다.'는 '누구를 만났는지를 캐다.'와 '누구를 만났는지를 묻다.'의 두 동사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비통사적 합성 동사는 같은 형식을 취하지만 두 개의 문장에서 온 동사로 보기 어렵다.

	ⓐ	ⓑ
①	한데 엉겨들다.	컵이 오그라들다.
②	모자를 꺼내들다.	손목을 붙들다.
③	방을 구워먹다.	남을 속여먹다
④	힘이 솟아나다.	자리에서 물러나다.
⑤	소름이 돋아나다.	마음에서 우러나다.

[2점]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84. <보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표준어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표준어 규정 제9항의 [붙임]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 곧 장인(匠人)이라는 뜻이 살아 있는 말은 '장이'가 붙은 말이 표준어이다. 반면, 기술자라는 뜻이 살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쟁이'가 붙은 말이 표준어이다.

[2점]

① 미장이, 중매장이, 소금장이
② 멋쟁이, 대장쟁이, 극성쟁이
③ 미장이, 유기장이, 재장장이
④ 멋쟁이, 개구쟁이, 도배쟁이
⑤ 유기장이, 중매장이, 대장장이

8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포함된 어미는 모두 'ㄹ' 받침 뒤에 붙은 어미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사소리로 적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을 바르게 추리한 것은?

보기

이 노릇을 어찌할꼬?
내일은 일찍 올게요.
오늘 점심은 무얼 먹을까?
해오라기 겉이 희다고 속까지 흴쏘냐?
그것은 무모한 행동일지언정 용감한 행동은 아니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 가장 거룩할지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을 두고 누가 그르다고 할까?
그것이 비록 꾸며 낸 이야기일지라도 아이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2점]

① 종결 어미는 된소리로 적고, 그 외의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② 의문형 어미는 된소리로 적고, 그 외의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③ 높임 표현의 어미는 된소리로 적고, 낮춤 표현의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④ 현대어 어투의 어미는 된소리로 적고, 옛말 어투의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⑤ 직서적인 표현일 때는 된소리로 적고, 완곡한 표현일 경우에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86. <보기 1>`을 바탕으로,<보기 2>`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듯이 : 의존 명사.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듯 : 의존 명사. (1) '듯이'의 준말. (2) ('은 듯만 듯', '는 듯 마는 듯', '을 듯 말 듯' 구성으로 쓰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말.
듯이 :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듯 : 어미. '듯이'의 준말.
듯하다 : 보조 형용사. (동사나 형용사, 또는 '이다'의 관형사형 뒤에 쓰여) 앞말이 뜻하는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말.

보기2

희망을 주기라도 ㉠하듯 무지개가 떴다.
그 청년은 세상을 다 아는 ㉡듯이 말하고 있다.
눈이 올 ㉢듯한 날씨인지라 기분이 스산하다.

[2점]

① ㉠에서 '하'는 어간이고, '듯'은 어미이다.
② ㉠은 '하듯이'로 바꾸어 써도 의미에 변화가 없다.
③ ㉡은 짐작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④ ㉡을 '듯'으로 바꾸어 쓰면 품사도 바뀐다.
⑤ ㉢은 '듯'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87.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포함된 어미는 모두 'ㄹ' 받침 뒤에 붙은 어미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사소리로 적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을 바르게 추리한 것은?

보기

○ 이 노릇을 어찌할꼬?
○ 내일은 일찍 올게요.
○ 오늘 점심은 무얼 먹을까?
○ 해오라기 겉이 희다고 속까지 흴쏘냐?
○ 그것은 무모한 행동일지언정 용감한 행동은 아니다.
○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 가장 거룩할지니라.
○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을 두고 누가 그르다고 할까?
○ 그것이 비록 꾸며 낸 이야기일지라도 아이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2점]

① 종결 어미는 된소리로 적고, 그 외의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② 의문형 어미는 된소리로 적고, 그 외의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③ 높임 표현의 어미는 된소리로 적고, 낮춤 표현의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④ 현대어 어투의 어미는 된소리로 적고, 옛말 어투의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⑤ 직서적인 표현일 때는 된소리로 적고, 완곡한 표현일 경우에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88. 밑줄 친 말이<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한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주어가 되풀이됨을 피하기 위하여, 그 주어에 상당하는 인칭 대명사를 바꾸어 쓰는 방식을 재귀적 용법이라 하며, 이때 사용되는 대명사를 재귀 대명사라고 한다. 우리말의 재귀 대명사로는 '철수도 자기 잘못을 알고 있다.'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보편화되어 있다.

[2점]

① 사람은 누구든지 제 자식을 귀여워한다.
② 내 여자 친구는 자기 동생을 매우 귀여워한다.
③ 아버님은 생전에 당신의 책들을 소중히 여기셨다.
④ 가정이 어려우니 용돈 정도는 저희가 벌어서 쓸게요.
⑤ 고위 공직자는 공인으로서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89. <보기 1>을 바탕으로<보기 2>에 대해 탐구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 '-ㅁ/-음'에 대하여
□명사형 어미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형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사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어 주어를 서술하며 품사가 변하지 않는다.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있다.
□접미사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로 파생시킨다. 파생된 명사는 서술성이 없으므로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없고, 관형어가 올 수 있다.

< 보기 2>

ㄱ. 그곳에 모인 사람이 큰 웃음을 웃었다.
ㄴ. 영희는 잠1을 잠2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ㄷ.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고 나니 피로가 풀렸다.
ㄹ. 크게 웃음으로써 교실의 분위기를 밝게 바꾸었다.

[3점]

① ㄱ의 '웃음'은 '큰'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접미사이다.
② ㄴ의 '잠1'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고, '잠2'의 '-ㅁ'은 접미사이다.
③ ㄷ의 '잠'은 '자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④ ㄷ의 '잠'은 서술성이 없지만 ㄹ의 '웃음'은 서술성이 있다.
⑤ ㄹ의 '웃음'은 '크게'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명사형 어미이다.

90. <보기 1>을 참조하여<보기 2>에 대해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부사격 조사에 대한 기초 조사
⑴ 로 : 장소와 방향을 나타냄(단순히 목표를 그쪽으로 잡았음을 의미)
⑵ 에 : 진행 방향을 나타냄(그 용도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가는 것을 의미)
⑶ 에/에서 : 도착하는 곳이면 '에', 떠나는 곳이면 '에서'
⑷ 에/에게 : 유정 명사 뒤에 붙으면 '에게', 그 밖에는 '에'
⑸ 한테/하고 : 구어체에 쓰이는 부사격 조사로 '에게, 과/와'와 기능은 같음

보기2

㉠ 힘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다.
㉡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로 갔다.
㉢ 부당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
㉣ 여행에 대한 부푼 마음으로 우리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
㉤ 앞으로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생각이다.

[2점]

① ㉠의 경우 '집으로 도착했다.'라고 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② ㉡을 '학교에 갔다.'로 고치면 의미가 추가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의 경우 부사어가 '국회의원'이라면 '에'를 사용해야 한다.
④ ㉣의 경우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경우에는 '공항에'라고 해야 한다.
⑤ ㉤의 경우 '나한테'는 문어체로 고친다면 '나에게'로 해야 한다.

91. <보기>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선생님 : 우리말의 부정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이나 '않다'로 표현되는 '안 부정문'이고, 다른 하나는 '못'이나 '못하다'로 표현

되는 '못 부정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경우에 쓰이는지 다음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발표해 보세요.

ㄱ. 장빈은 배가 고팠지만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안 했다.
ㄴ. 논바닥이 갈라지고 있는데도,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ㄷ.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많은 준비를 했다.
ㄹ. 우종은 100m 기록을 14초 이내로 당기고 싶지만, 아직은 달성하지 못했다.
ㅁ. 12시까지 고향집에 꼭 가야 하는데, 폭설이 내려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2점]

① ㄱ - 동작 주체의 의지가 반영될 때, '안 부정문'이 쓰일 수 있습니다.
② ㄴ - 부정하는 대상이 객관적인 사실일 때, '안 부정문'이 쓰일 수 있습니다.
③ ㄷ - 말하는 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안 부정문'이 쓰일 수 있습니다.
④ ㄹ - 동작 주체의 능력이 부족할 때, '못 부정문'이 쓰일 수 있습니다.
⑤ ㅁ - 외부의 상황이 원인일 때, '못 부정문'이 쓰일 수 있습니다.

92. <보기>는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된 설명 중 일부이다. 이를 적용하여 잘못 쓰인 표기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외래어의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만을 적는다.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ʃ]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서 '샤, 셔, 셰, 쇼, 슈, 시'로 적으며, 어말에서는 '시'로, 자음 앞에서는 '슈'로 적는다.
㉱ 파찰음 표기에서는 '죠, 쟈, 쥬, 져, 쵸, 챠, 츄, 쳐'와 같은 이중 모음 표기를 하지 않는다.

	잘못 쓰인 표기	적용 규정	수정 방향
①	뻐스	㉯	버스
②	슈퍼마	㉮, ㉰	수퍼마
③	쥬스	㉱	주스
④	플래쉬	㉰	플래시
⑤	쵸콜릳	㉮, ㉱	초콜릿

[2점]

① 뻐스→버스
② 슈퍼마→수퍼마
③ 쥬스→주스
④ 플래쉬→플래시
⑤ 쵸콜릳→초콜릿

93. <보기>는 '오'와 '요'를 구별하기 위해 전자 사전에서 찾은 내용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오
[어미] ('이다', '아니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하오'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따님이 참 예쁘오. / 얼마나 심려가 크시오?

[조사] ① (주로 '해'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나 일부 '하게'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대에게는 잘 쓰지 않는다.
돈이 없어요. / 기차가 참 빨리 가지요.
②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따위의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렇게 해 주시기만 하면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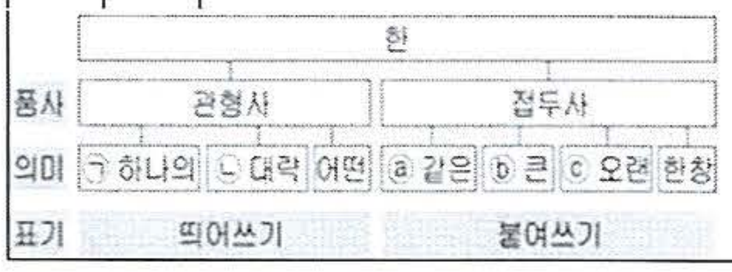
요
[어미]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
이것은 말이요, 저것은 소요, 또 그것은 돼지이다

[2점]

① '마음은요 더없이 좋아요.'에서 '요'는 모두 보조사로 쓰인 예로군.
② '장이 안 오는 걸요.'에서 '요'는 청자에 대한 존대의 뜻을 담고 있군.
③ '우리는 친구가 아니요, 형제랍니다.'에서 '요'는 연결 어미이기 때문에 '고'로 바꾸어 써도 될 것 같아.
④ '부모님이 기다릴 테니 빨리 집으로 들아가오.'에서 '오'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였군.
⑤ '아저씨 저를 모르겠어요?'에서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 의문문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94. <자료 1>은 관형사나 접두사로 쓰이는 '한'과 관련하여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자료 2>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1



자료2

어느 ㉮한 사람이 ㉯한 열흘 전에 평소 연락이 없던 친구로부터 갑작스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다른 사기꾼들과 ㉰한통속이 되어 그를 속여 ㉱한밑천 잡으려던 것이었다. 경찰에 잡힌 후, 그는 ㉲한겨울에 집도 없고 어려운 살림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며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2점]

① ㉮는 관형사 -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② ㉯는 관형사 -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③ ㉰는 접두사 -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④ ㉱는 접두사 -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⑤ ㉲는 접두사 -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95. 비슷한 뜻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접사들을 모아 의미를 분석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보기>에 제시된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대상 접사]
쯤,께,경,가량
[분석 방법]
1. 주어진 문장의 [ ]에 있는 접사들을 교체해 보면서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문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접사 앞에 *를 표시한다.
2. 문장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접사의 의미 특성을 파악한다.
[1차 분석 결과]
ㄱ. 우리는 오는 3월[`쯤, 께, 경, *가량`] 새 일을 시작할 예정이다.
ㄴ. 새 사무실은 서울역[`쯤, 께, *경, *가량`]에 물색하도록 하자.
ㄷ. 사무실 임대 비용이 월 천만 원[`쯤, *께, *경, 가량`] 들겠지.
ㄹ. 서류를 준비하는 데 한 달[`쯤, *께, *경, 가량`] 걸린다는군.

[2점]

① 'ㄱ'을 보면 '쯤', '께', '경'은 시간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② 'ㄱ, ㄴ'을 종합하면 '쯤', '께'는 시간과 공간의 정도를 뜻하는 말로 쓰이는군.
③ 'ㄱ`~`ㄷ'을 종합해 보면 '경'은 시간이나 수량을 의미하는 단어와 결합할 수 있어.
④ 'ㄱ`~`ㄹ'을 종합하면 '쯤'은 시간과 공간은 물론 수량의 정도까지 나타내고 있군.
⑤ 'ㄴ, ㄷ'을 살펴보면 '가량'은 수량의 정도를 뜻하는 말로 쓰이고 공간적인 의미는 없어.

96. <보기>를 바탕으로 조사(助詞)에 대해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다.
ㄴ. 형과 동생이 다시 만났다.
ㄷ. 너와 나만의 추억을 간직하자.

[2점]

① ㄱ의 '께서, 에'는 앞말이 각각 주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군.
② ㄱ의 '께서'에는 ㄴ의 '이'와 달리 존대의 의미가 담겨 있군.
③ ㄴ의 '이'는 '동생'이 아니라 '형과 동생'에 결합하는군.
④ ㄴ의 '과'와 ㄷ의 '와'는 앞말의 의미에 의해 선택되는군.
⑤ ㄷ의 '만의'를 보면 조사끼리의 결합도 가능하군.

97. <보기>의 예를 통해, 조사 '으로'에 대해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여행사에서]
상담원 :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고객** : 네, 이번에 가족들과 ㉠강릉으로 여행을 갈까 하는데요.
상담원 : 네, 그러세요. 지금 강릉은 갑자기 내린 ㉡눈으로 교통 상황이 조금 안 좋은데, 어떻게 하지요?
고객 : 그런가요? 그래도 눈이 덮여 멋진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 빨리 가고 싶군요.
상담원 : 잠시만요. 우리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셨네요. 그러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혹시, 강릉에는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객 : 네, ㉤이번으로 세 번째입니다. 가도 가도 또 가고 싶은 곳이지요.

[2점]

① ㉠에서는 목적지로 하는 어떤 지점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군.
② ㉡에서는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나타내는군.
③ ㉢에서는 어떤 결과로 바뀌거나 변화했음을 제시하는 기능을 나타내는군.
④ ㉣에서는 어떤 사람의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군.
⑤ ㉤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원인을 제시하는 기능을 나타내는군.

9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들 수 있는 문장은?

<보기>

'듣다'의 중심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이 감각 기관을 통해 소리를 알아차리다.'이다. '듣다'가 A와 같이 중심의미로 쓰일 때에는 피동문으로 바꿔도 옳은 문장이 된다. 그러나 '칭찬을 듣다'와 같이 중심의미에서 벗어난 의미로 쓰이면 피동문으로 바꿨을 때 B와 같이 어색한 문장이 된다.

A. 나는 자동차 소리를 듣다. (능동문)
자동차 소리가 나에게 들리다. (피동문)
B. 나는 칭찬을 듣다. (능동문)
칭찬이 나에게 들리다. (피동문)

[2점]

①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
②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③ 그 약은 다른 약보다 나에게 잘 듣는다.
④ 낯선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는 멈칫했다.
⑤ 이 자전거는 낡아 말을 잘 듣지 않는다.

99. <보기>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종결 어미이다.<보기>를 바탕으로 종결 어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얘기를 듣습니까? / 얘기를 듣소?
○ 의자에 앉아라. / 빨리 밥을 먹어라.
○ 날씨가 덥다. / 날씨가 덥지. / 날씨가 덥네.
○ 비가 그치겠다. / 비가 그치겠니? / 비가 그치겠구나!
○ 철수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 누가 가느냐가 문제다.

[2점]

① 문장의 시제를 표시하는군.
② 뒤에 조사가 연결될 수도 있군.
③ 진술, 의문, 감탄 따위를 나타내는군.
④ 듣는 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⑤ 음운 환경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군.

100. <보기 1>을 참고로 할 때,<보기 2>의 ⓐ~ⓔ가 같은 유형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보기1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⑵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⑶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보기2

고향 어귀 ⓐ 고갯마루에 서서 날 기다리던 형을 떠올리면 ⓑ 콧등이 찡해온다. 아버지가 없었던 집안에서 ⓒ 오랫동안 형은 내게 아버지 역할을 했다. 형의 ⓓ 아랫니는 유난히 튀어 나왔지만 나는 그걸 바라 보는 게 마냥 좋았다. 정말 우리 형제는 이와 ⓔ 잇몸과 같은 관계였다.

[2점]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101. <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맞춤법 규정
제2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깔쭉이, 꿀꿀이 등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개구리, 귀뚜라미 등

【해설】
접미사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란, 곧 동사나 형용사로 파생될 수 있는 어근을 말한다. 예컨대 (눈을) '깜짝깜짝하다, 깜짝거리다, 깜짝이다, (눈) 깜짝이'와 같이 나타나는 형식에 있어서, 실질 형태소인 어근 '깜짝'의 형태를 고정시킴으로써, 그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2점]

① '삐죽거리다'라는 말이 있으므로 '삐주기'가 아니라 '삐죽이'라고 적어야겠군.
② '홀쭉하다'라는 말로 보아 홀쭉한 사람을 뜻하는 말은 '홀쭉이'로 적어야겠군.
③ '매미', '뻐꾸기'를 '맴이', '뻐꾹이'라고 적지 않는 것은 붙임 규정에 따른 것이군.
④ '부스러기'나 '동그라미' 같은 말도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 예에 추가할 수 있겠어.
⑤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접미사가 붙은 말로 '누덕이'를 들 수 있겠어.

102. <보기>의 용례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은?

보기

	용법	의미	용례
체	동사나 형용사를 관형사형으로 만든 뒤에 붙이는 의존명사	거짓으로 꾸미는 태도	㉠
채	동사의 관형사형 뒤에 붙이는 의존명사	무엇을 하는 상태 그대로	㉡
-째	언제나 명사 뒤에 붙는 접미사	그것을 나누거나 가르지 않고 그대로	㉢

[2점]

① ㉠ - 그녀는 나를 보고도 웃 본 체 딴전을 부렸다.
② ㉠ - 너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는 왜 하니?
③ ㉡ - 그는 그녀가 손짓을 한 것도 모른 채 출발했다.
④ ㉡ -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얼굴이 노란 채 앉아 있었다.
⑤ ㉢ -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의 자존심이 뿌리째 뽑힌 느낌이 들었다.

103. <보기 1>의 빈칸에 '들' 또는 '등'을 넣어<보기 2> ㉠~㉤의 용례로 활용한다고 할 때, ㉠~㉤ 중 용례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보기1

○ 그동안 잘 지냈어( )?
○ 소말돼지 ( )은 가축이다.
○ 과일은 배, 사과 ( ) 두 가지만 샀다.

보기2

○ 들[1] 의명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벌여 말할 때,
㉠ 그 여러 사물을 모두 가리키거나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뜻하는 말.

○ 들[2] 조
㉡ 부사어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말.
㉢ 어미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말.

○ 등(等) 의명
㉣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 앞에 열거한 대상에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2점]

① ㉠
② ㉡
③ ㉢
④ ㉣
⑤ ㉤

104. <보기>의 규정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몇 개의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음을 인정한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2점]

① '유행(流行)'이나 '이발(理髮)'의 경우에는 '제10항'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옛날 돈의 단위인 '냥(兩)'이나 해를 의미하는 '년(年)'은 '제10항-다만'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③ '남녀(男女)'나 '은닉(隱匿)'의 경우에는 '제10항-[붙임 1]'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④ '극락(極樂)'이나 '연로(年老)'의 경우에는 '제12항-[붙임 1]'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⑤ '중노동(重勞動)'이나 '비논리적(非論理的)'의 경우에는 '제12항-[붙임 2]'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05. 어휘 사용이 잘못된 이유가<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잘났다고 으시댄다'의 밑줄 친 부분은 '으스댄다(기본형 : 으스대다)'라는 표준어의 형태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어휘 사용이 잘못된 사례이다.

[2점]

① 명예를 쫓는 삶
② 높고 푸르른 하늘
③ 경제 회복세 뚜렷
④ 역전 앞에서 기다려라.
⑤ 그는 손으로 하늘을 가르쳤다.

106. <보기 1>에서 설명한 '상대적 시제'가 나타나 있는 것을<보기 2>에서 있는대로 모두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나영이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태호를 멀거니 쳐다보았다.'라는 문장에는 두 가지 시제가 들어 있다. 문장 전체의 절대적 시제는 과거이다. 그런데 문장 속에 '지나가는'이라는 현재 시제가 하나 더 있다. 이것은 과거 속의 현재가 되는데, 이런 것을 '상대적 시제'라고 한다.

보기 2

㉠ 저 생선은 비린내가 몹시 심하게 난다.
㉡ 갈증 때문에 그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었다.
㉢ 안개로 인해 배가 암초에 걸리고 말았다.
㉣ 소녀들의 화사한 옷차림에 기분이 좋아졌다.

[2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07. <보기>는 표준어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설명에 어긋나는 사례는?

보기

제12항 '웃'및'윗'은 명사'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위'로 한다.
[다만 2]'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2점]

① 윗입술 ② 윗잇몸
③ 웃돈 ④ 위쪽
⑤ 윗층

108. <보기>는 퀴즈 문제 중 일부이다. 잘못 사용된 외래어를 고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이번 문제는 난쎈스 문제입니다. 잘 듣고 부저를 빠르게 눌러 주세요. 우주에서 소련 우주 유영인과 랑데뷰하기도 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기도 합니다. 도움 화면 나갑니다. 도움 화면 중에 "최초의 한국 우주인 ○○○ 화이팅!"이라는 플랭카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외래어		바른 외래어
①	난쎈스	→	넌센스
②	부저	→	버저
③	랑데뷰	→	랑데부
④	화이팅	→	파이팅
⑤	플랭카드	→	플래카드

[2점]

① ② ③ ④ ⑤

109. <보기>는 국어의 사동 표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의 사동사는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를 말한다.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동사 어근에 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를 결합하는 방법
예) 눈이 녹는다.→ 눈을 녹인다.
㉡ 타동사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는 방법
예) 동생이 약을 먹었다. →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약을 먹이셨다.
㉢ 형용사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는 방법
예) 집 사이가 넓다. → 집 사이를 넓히다.
㉣ 어근에 '게 하다'를 결합하는 방법
예) 영수가 집을 지키다. → 영수가 집을 지키게 하다.

[2점]

① ㉠, ㉢의 경우에는 사동문을 만들면 원래 문장의 주어는 목적어가 되는군.
② '철수가 밥을 먹였다.'에서 '먹였다'는 ㉡의 방법과 유사한 사례이군.
③ ㉡에서 원래 문장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군.
④ ㉢의 '넓히다'의 '히'는 '이슬이 맺히다'에서 '맺히다'의 '히'와 그 기능이 같군.
⑤ ㉣의 경우에는 사동문을 만들더라도 주어는 변하지 않았군.

110. <보기 1>을 참고하여<보기 2>의 ㄱ~ㄹ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만을 모두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1

'-지'가 의문형 어미로 쓰일 때에는 앞의 말에 붙여 적지만, 용언의 관형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동안)'을 나타낼 때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따라서 '지'가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띄어쓰기에 유의해야 한다.

보기2

ㄱ.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른다.
ㄴ. 밥을 먹은지 한참 지났다.
ㄷ. 그를 만난지 한 달이 되었다.
ㄹ. 그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다.

[2점]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1. 다음은 생활글의 일부이다. ㉠~㉤을 고쳐 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 집은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몇일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이 동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랫집에는 ㉡멋장이 누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 누나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마침 나는 밀린 방학 숙제를 ㉢불이나케 하고 있었습니다.

"숙제는 틈틈이 해야지. 어려운 건 물어 봐. 내가 ㉣가리켜 줄게."
"아녜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가만히 ㉤있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기……."

[2점]

① ㉠은 규범에 맞추어 '며칠'로 고쳐 쓴다.
② ㉡은 기술자가 아니므로 '멋쟁이'로 고쳐 쓴다.
③ ㉢은 소리나는 대로 '부리나케'로 고쳐 쓴다.
④ ㉣은 문맥에 맞게 '가르쳐'로 고쳐 쓴다.
⑤ ㉤은 문맥적 의미에 따라 '이따가'로 고쳐 쓴다.

112.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어떤 단어나 어간이 형태상의 변화 없이 품사를 달리하여 쓰이는 경우를 '품사의 통용'이라 한다. 이는 결국 동일한 형태의 한 단어가 두 가지 품사로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 된다. 예를 들어, '이는 우리가 생각하던 바입니다.'에서의 '이'와 '이 나무는 모양새가 아주 좋다.'에서의 '이' 같은 것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앞의 것은 대명사이지만, 뒤의 것은 관형사이다.

[2점]

① 너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니?
  무엇을 잘못 먹었기에 배가 아프지?
② 네가 본 대로 다 말해 주기 바란다.
  누나 말대로 하면 일이 잘 풀릴 거야.
③ 그의 키는 평균치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땅은 아주 비옥하여 식물이 잘 큰다.
④ 남부 지역은 기온이 높아서 농사가 잘 된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에 닿기야 하겠어?
⑤ 우리 은사님은 평생을 바쳐 교육에 봉사하셨다.
  저 사람은 평생 놀고먹을 팔자를 타고났나 봐.

113. 밑줄 친 말들이 모두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2점]

① 벌써 일을 맞혔다. - 문제의 답을 모두 마쳤다.
②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몸을 반듯이 세우고 있었다.
③ 할머님께 편지를 붙였다. -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부쳐야 한다.
④ 생선을 졸여서 만든 반찬을 좋아한다. - 마음을 조리고 기다렸다.
⑤ 논개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받쳤다. - 튼튼한 다리가 몸체를 바치고 있다.

114.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는 예를 짝지은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합성어가 파생법에 의하여 다시 파생되는 일이 있다. 이와 같은 단어 형성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주어 + 서술어) + 접미사}
ⓑ {(목적어 + 서술어) + 접미사}
ⓒ {(부사어 + 서술어) + 접미사}
ⓓ {비통사적 합성 어근 + 접미사}
ⓔ {반복 합성 명사 + 접미사}

[2점]

① ⓐ - 해돋이 ② ⓑ - 눈웃음 ③ ⓒ - 감옥살이
④ ⓓ - 여닫이 ⑤ ⓔ - 집집이

115. 혼동되는 어미의 쓰임을 알기 위해 해당 어미의 의미와 용례를<보기>와 같이 작성해 보았다. 용례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으)러 / -(으)려
'-(으)러'는 그 동작의 직접 목적을 표시하고, '-(으)려'는 그 동작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표시한다.
㉠ 서점에 무엇을 하러 가느냐?
㉡ 서점에서 무엇을 하려 하느냐?
-(으)므로 / (-ㅁ, -음)으로
'-(으)므로'는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며, '(-ㅁ, -음)으로'는 수단 또는 방법의 의미를 나타낸다.
㉢ 그는 책을 읽으므로 같이 외출할 수가 없다.
㉣ 그는 책을 읽음으로 시름을 잊는다.
-(으)리만큼 / -니만큼
'-(으)리만큼'은 'ㄹ 정도로'의 뜻을 나타내며, '-니만큼'은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낸다.
㉤ 한 걸음도 걷지 못하리만큼 자동차가 필요하다.
㉥ 한 걸음도 걷지 못하니만큼 네가 대신 가거라.

[2점]

① ㉠ ② ㉡ ③ ㉢ ④ ㉤ ⑤ ㉥

116. <보기>를 참조할 때, 접두사 '강-'이 붙은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강-[접사]
(가)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강된장
(나)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강기침
(다) (몇몇 명사 앞에 붙어) '억지스러운, 부자연스러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강울음
(라) (몇몇 명사, 형용사 앞에 붙어) '호된' 또는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강마르다

[2점]

① '강-'이라는 접두사가 붙어도 단어의 품사는 바뀌지 않는군.
② (가)로 보아, '강참숯'은 다른 나무의 숯이 섞이지 아니한 참숯을 가리키겠군.
③ (나)로 보아, '강서리'는 물기가 없는 된서리를 뜻하는 말일 거야.
④ (다)로 보아, '엄살'이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울 때는 '강엄살'이 되겠어.
⑤ 흔히 야구에서 자주 쓰는 '강타자'의 경우는 (라)를 뒷받침하는 예라고 할 수 있어.

117. <보기 1>을 바탕으로,<보기 2>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듯이 : 의존 명사.(어미'은','는','을'뒤에 쓰여)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듯 : 의존 명사. (1)'듯이'의 준말.(2) ('은 듯 만 듯','는 듯 마는 듯','을 듯 말 듯' 구성으로 쓰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말.
듯이 :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으시','었','겠'뒤에 붙어)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듯 : 어미.'듯이'의 준말.
듯하다 : 보조 형용사.(동사나 형용사, 또는 '이다'의 관형사형 뒤에 쓰여) 앞말이 뜻하는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말.

보기

희망을 주기라도 ㉠하듯 무지개가 떴다.
그 청년은 세상을 다 아는 ㉡듯이 말하고 있다.
눈이 올 ㉢듯한 날씨인지라 기분이 스산하다.

[2점]

① ㉠에서 '하'는 어간이고, '듯'은 어미이다.
② ㉠은 '하듯이'로 바꾸어 써도 의미에 변화가 없다.
③ ㉡은 짐작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④ ㉡을 '듯'으로 바꾸어 쓰면 품사도 바뀐다.
⑤ ㉢은 '듯'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118. <보기>를 통해 감탄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보기

아 들 : 아버지, 저도 바둑을 배워서 명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 ㉠뭐, 명인이 된다고?
아 들 : ㉡예, 그러니까 바둑판 하나 사 주세요.
아버지 : ㉢글쎄, 사 줘야 되나?
아 들 : 사 주세요, ㉣예?
아버지 : 얼마 전에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농구공을 사줬더니 작심삼일이었잖아. 이번에도 흐지부지할 거지?
아 들 : 그런데, ㉤음, 작심삼일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 그건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 들 : ㉥아니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아버지 : 명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들 :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볼게요.

[2점]

① ㉠은 더 이상 여러 말 할 것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겠군.
② ㉡은 긍정하여 대답하는 의미로, ㉣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군.
③ ㉢이 ㉦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군.
④ ㉤이 문장의 중간에 쓰인 것을 보면 독립어의 기능을 할 수 없겠군.
⑤ ㉥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의 '아니'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겠군.

[119]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19. <보기>를 토대로 보조 용언에 관한 문법적 지식을 탐구하였다. 탐구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나는 울다. - 나는 울고 싶다.
ㄴ. 나는 그 문제를 풀었다. - 나는 그 문제를 풀어 내었다.
ㄷ. 나는 사과를 먹다. - 사과를 먹어 보다.
ㄹ. 나는 서울로 가고 싶다. - 나는 서울로 가고 싶지 않다〔안 가고 싶다〕.
ㅁ. 나는 그를 서울로 가게 했다. - 나는 서울로 가게 되었다.

[2점]

① ㄱ : 의존적 성격이 강한 '싶다'가 본용언 '울다'에 붙음으로써 원래의 문장에 문법적 의미를 더해 준다.
② ㄴ : 본용언인 '풀어'를 제거하면 비문이 되지만, 보조 용언인 '내었다'는 제거해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③ ㄷ : 보조 용언이 결합할 경우 시제 선어말 어미는 앞의 본용언에 붙인다.
④ ㄹ : '싶다'가 보조 용언으로 사용된 문장을 부정할 경우, '싶지 않다' 혹은 '안 가고 싶다' 모두 가능하다.
⑤ ㅁ : 보조 용언의 사동형은 '-게 하다'의 꼴로, 피동형은 '-게 되다'의 꼴로 쓰인다.

120. <보기>는 '조사의 오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한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조사의 오용(誤用)
㉮ 대조 보조사 '은/는'은 주격 조사 '이/가'와 용법이 다름에도 주격 조사를 써야 할 곳에서 사용된 경우가 있다.
㉯ 탈격(奪格)을 나타내는<-서>를 함부로 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에게'는 사람이나 동물에게만 쓰이고, '에'는 무정물에만 사용되는 조사이지만 이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다.
㉱ '-(으)로서'는 자격을, '-(으)로써'는 수단이나 방법을 말하는데 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남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에는 '-라고', '-라는'을 사용하는 직접 인용과 '-고', '-는'을 사용하는 간접 인용이 있는데,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처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2점]

① ㉮ - 옛날 옛적에 마음씨가 착한 총각은 있었습니다. 총각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② ㉯ - 구학운은 아버지에게 틈틈이 논어 맹자까지 배웠고, 신학운은 어머님께 중학 과정까지를 배웠다.
③ ㉰ - 정부는 이 문제를 일본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
④ ㉱ - 글로써 밥을 먹기란 정말 어렵구나.
⑤ ㉲ - 월드컵 이후 각 매스컴에서 우리 선수들의 골에 대한 결정력이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했다.

121.<보기1>을 참고할 때,<보기2>의 ⓐ~ⓓ 중 '-마는'이 들어가야 할 것은?

<보기1>

○ '-마는' : 몇몇 종결어미 뒤에 붙는 보조사로서, '-만'으로 줄어들 수 있다.
○ '-만은' : 보조사 '-만'과 '-은'이 결합한 형태로, 어미뿐만 아니라 체언이나 조사 뒤에도 붙는다.

<보기2>

○ 역행을 가서(ⓐ)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자.
○ 오늘은 그냥 간다(ⓑ) 다음에 꼭 다시 오리라.
○ 봉오리가 맺힌 가지(ⓒ) 꺾지 않도록 조심하렴.
○ 얼마나 되겠느냐(ⓓ) 살림에 보태어 쓰려무나.

[2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22. <보기1>을<보기2>의 용례에 적용하여 심화 학습을 하려고 한다. ㄱ~ㄷ에 들어갈 명사형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보기 1

● 용언의 명사형 만들기
명사형이란, 용언(동사, 형용사)에 명사형 어미가 붙어 문장 속에서 명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어간이 모음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 : 어간 + '-ㅁ'
어간이 'ㄹ' 이외의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 : 어간 + '-음'
※ 또 다른 명사형 어미 '-기' : 양자의 경우에 다 붙일 수 있음.

보기 2

달이 차고 ㄱ에 따라 만조 때의 수위가 달라진다.
악몽을 꾸다가 놀라 깼더니 다시 ㄴ이(가) 무섭다.
검사는 1차 사인(死因)과 2차 사인이 ㄷ을(를) 확인했다.

[2점]

① ㄱ:기윾 ㄴ:잠들기 ㄷ:다르기
② ㄱ:기윾 ㄴ:잠들기 ㄷ:다름
③ ㄱ:기울기 ㄴ:잠듦 ㄷ:다름
④ ㄱ:기울기 ㄴ:잠듦 ㄷ:다르기
⑤ ㄱ:기울음 ㄴ:잠들기 ㄷ:다름

123.<보기>를 통해 '접사'의 특징에 대해 학습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5
○ 군- : 군말, 군살, 군손질, 군침
○ 헛- : 헛고생, 헛걸음, 헛돌다, 헛디디다
○ -거리다 : 꿈틀거리다, 머뭇거리다, 글썽거리다
○ -롭다 : 평화롭다, 자유롭다, 새롭다

[2점]

① 접미사를 붙여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 수 있다.
② 접두사 중에는 명사와 동사에 다 붙을 수 있는 것도 있다.
③ 접두사는 어근의 앞에 붙어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한다.
④ 접두사는 자립성을 갖는 형태소에, 접미사는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에 붙는다.
⑤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124.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어떤 단어나 어간이 형태상의 변화 없이 품사를 달리하여 쓰이는 경우를 '품사의 통용'이라 한다. 이는 결국 동일한 형태의 한 단어가 두 가지 품사로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 된다. 예를 들어, '이는 우리가 생각하던 바입니다.'에서의 '이'와 '이 나무는 모양새가 아주 좋다.'에서의 '이' 같은 것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앞의 것은 대명사이지만, 뒤의 것은 관형사이다.

[2점]

① 너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니?
무엇을 잘못 먹었기에 배가 아프지?

② 네가 본 대로 다 말해 주기 바란다.
누나 말대로 하면 일이 잘 풀릴 거야.

③ 그의 키는 평균치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땅은 아주 비옥하여 식물이 잘 큰다.

④ 남부 지역은 기온이 높아서 농사가 잘 된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에 닿기야 하겠어?

⑤ 우리 은사님은 평생을 바쳐 교육에 봉사하셨다.
저 사람은 평생 놀고먹을 팔자를 타고났나 봐.

125. 밑줄 친 용언의 활용이<보기>의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어미를 붙여 실제 문장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2점]

① 내 동생은 계속 앞만 보고 걷는다.
② 김치를 담은 항아리를 땅에 묻는다.
③ 시골에 가면 우물에서 물을 긷는다.
④ 그 남자는 조용히 가져온 차에 물건을 싣는다.
⑤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며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다.

126. <보기 1>을 참고하여<보기 2>의 예를 토대로 '있다'의 의미에 따른 용법을 구별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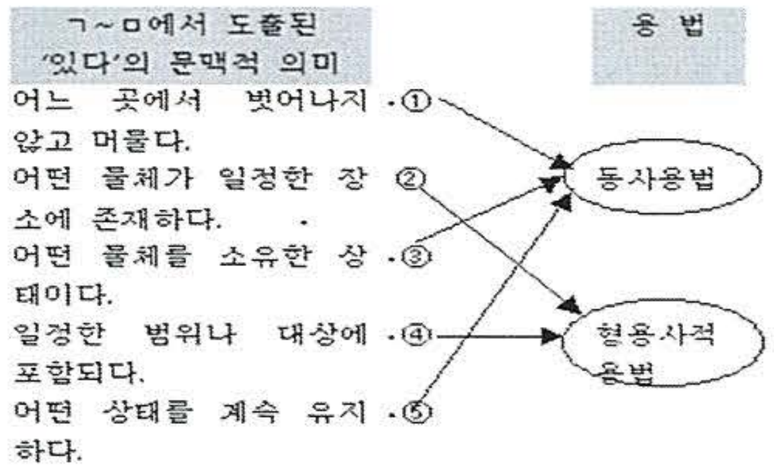
보기1

우리말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겉모양, 활용 방식, 문장에서의 기능 등이 비슷하여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몇 가지 어미 활용상의 차이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1. 동사는 평서형 종결 어미로 '-ㄴ다 / -는다'가 붙지만, 형용사는 '-다'가 붙는다.
2. 동사에는 '~ 중이다'가 붙을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붙을 수 없다.
3. 동사는 명령형 종결 어미 '-아라 / -어라'나 청유형 종결 어미 '-자'가 붙을 수 있지만, 형용사는 붙지 못한다.

보기2

ㄱ. 영호는 학교 도서관에 있다.
ㄴ. 책상 위에 책이 여러 권 있다.
ㄷ. 영희는 특이하게 생긴 연필이 있다.
ㄹ. 합격자 명단에 영희의 이름이 있다.
ㅁ.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얌전하게 있다.



[2점]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127. <보기 1>의 맞춤법 규정을 참조하여<보기 2>의 자료에 대해 학생들이 보인 반응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넘어지다 늘어나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보기2>

㉮ 얼굴이 창백한 아이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 해가 지자 꼬마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 그는 힘없이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 이젠 [늘거서]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2점]

① ㉮의 '앉아'의 경우, '안자'로 발음되지만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앉아'로 적은 거로구나.
② ㉯의 '홑어지고'의 경우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서 적은 것이군.
③ ㉰의 '쓰러지고'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것이군.
④ ㉱의 '[늘거서]'는<보기 1>의 규정에 따라 '늙어서'로 적는 것이 올바른 표기가 되겠군.
⑤ ㉯와 ㉰의 '홑어지고'와 '쓰러지고'는 두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되었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지 않고 적은 것이로군.

128. <보기>는 문법 수업의 한 장면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교사: 동사나 형용사처럼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고, 어간이 어미를 자유롭게 취하는 현상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흐르다'를 예로 들어 생각해 봅시다. 자, '흐르다'를 어간과 어미로 나누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지요?
학생: '흐르-'가 어간이고 '-다'가 어미입니다.
교사: 그럼, '흐르다'를 여러 가지 어미를 사용하여 활용해 볼까요?
학생: '흐르고 - 흐르니 - 흘러서 - 흐르니까 - 흐르므로…….'요.
교사: 방금 말한 '흐르다'의 활용형 중에 어간과 어미에 변화가 생긴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학생: '흘러서'요.
교사: 잘했어요. 그럼, '흘러서'를 어간과 어미로 분석해 볼까요? '흐르-'가 어간이고, '-어서'가 어미가 되겠죠? 그런데 어간 '흐르-'와 어미 '-어서'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 '흐르-'의 '르'에서 'ㅡ'가 탈락하고, 어미 '-어서'에 'ㄹ'이 추가되어, 결국 '흘러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의 'ㅡ'가 탈락하고, 어미에 'ㄹ'이 추가되는 불규칙 활용을 '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 하나 풀어 볼까요?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르' 불규칙 활용을 하는 단어가 아닌 것을 찾아 보세요.

[2점]

①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도록 하세요.
② 무슨 일이 생기면 비상벨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상 시각보다 이른 시각에 목적지에 이를 수 있었다.
④ 나는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예의가 바른 학생이 더 좋다.
⑤ 오늘 오르게 될 산은 지난 번 올랐던 산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129. <보기>를 참고로 했을 때 밑줄 친 단어와 연결이 바르지 <u>않은</u> 것은?

<보기>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어 기법>
ㄱ. 기능 표현 : 어떤 기능이 있는지, 무엇에 활용되는지 드러내는 방법
ㄴ. 상징 표현 : 사물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
ㄷ. 행위 본뜨기 : 동작을 활용하는 방법
ㄹ. 모양 본뜨기 : 생김새나 색깔을 활용하는 방법
ㅁ. 변화 결합 : 한 의미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방법

[2점]

① ㄱ : <u>누룩곰팡이</u>는 술을 빚는 중요한 재료이다.
② ㄴ : 방이 너무 좁아서 <u>칼장</u>을 잤다.
③ ㄷ : 옛날에는 통풍을 위해 <u>들창</u>을 두었다.
④ ㄹ : 소나무는 <u>바늘잎</u> 식물에 해당한다.
⑤ ㅁ : <u>산들바람</u>이 시원하게 불어온다.

130. <보기 1>을 바탕으로<보기 2>를 탐구한 내용 중,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1

'먹다, 놀다'와 같은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 하고, '달다, 맛있다'와 같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한다. 그런데 전통 문법에서 존재사(存在詞)라고 부르기도 했던 '있다, 없다'는 현재 학교 문법에서 형용사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논란이 많은 단어들이다.

보기2

(가) 날지 못하는 새도 <u>있다</u>. / 새장에 새가 한 마리도 <u>없다</u>.
(나) 그는 <u>있는</u> 집 자손이다. / 양성 차별이 <u>없는</u> 사회가 되었다.
(다) 안에 누가 <u>있느냐</u>? / 너 거기 간 적 <u>없느냐</u>?
(라) 그런 사람도 <u>있구나</u>. / 가 볼 사람이 전혀 <u>없구나</u>.
(마) 떠들지 말고 얌전히 <u>있어라</u>. / 아무런 증세도 <u>없어라</u>.
우리 모두 함께 <u>있자</u>. / 우리 이 자리에 <u>없자</u>.

[2점]

① (가)와 같이 평서형의 현재형에서는 둘 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성격이 같다.
② (나)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이 아닌 '는'이 연결되므로 활용 방식이 둘 다 형용사와 같다.
③ (다)와 같이 의문형에서 '느냐'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둘 다 동사와 성격이 같다.
④ (라)와 같이 감탄형에서 '구나'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둘 다 형용사와 성격이 같다.
⑤ (마)와 같이 학교 문법에서 형용사인 두 단어 중, '있다'는 명령형과 청유형을 취하나, '없다'는 그렇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131. <보기 1>을 참조하여<보기 2>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1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이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1) '-았었-/-었었-'의 경우 발화시보다 훨씬 전에 발생하여 현재와는 강하게 단절된 사건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2) 과거의 어느 때를 기준으로 그때의 일이나 경험을 돌이켜 회상할 때에는 '-더-'를 사용한다.
(3)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도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곤 한다.
(4)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다음에는 회상 선어말 어미 '-더-'와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던'이 쓰인다.

보기2

㉠ 철수가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 그해 겨울 밤은 정말 포근하게 느껴졌었지.
㉢ 그렇게 예쁘던 순희가 지금 이렇게 변하다니.
㉣ 당시 학생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다.
㉤ 아까 네가 먹은 우유는 유통 기한을 넘긴 것이었다.

[2점]

① ㉠ : '-더-'를 사용하여 '어제'라는 시간의 일을 들이켜서 말하고 있다.
② ㉡ : '-었었-'을 사용하여 발화시보다 훨씬 앞에 일어난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③ ㉢ : '-았-/-었-' 없이 '-던'만 사용하여 가까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④ ㉣ : '-았-/-었-' 외에 '-던'을 사용하여 과거 회상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⑤ ㉤ : '-았-/-었-' 외에 '-(으)ㄴ'도 발화시보다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32. 밑줄 친 말이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2점]

① 영민아, 객적은 소리 그만 해라.
② 거치른 벌판을 달리는 말을 보아라.
③ 국기 계양대 앞에서 찍은 사진이구나.
④ 교문을 지나자 널따란 운동장이 보였다.
⑤ 눈이 하얗게 덮힌 길을 함께 걸어 보세요.

133. <보기>의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의미상 불필요한 단어를 쓰는 일이 있는데, 이처럼 불필요한 단어가 사용된 표현을 잉여적 표현이라고 한다. 잉여적 표현의 대표적인 것이 의미상 중복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이다.

[2점]

① 여성 자매 두 분이 면회를 왔습니다.
② 언덕 위의 낡은 초가집에서 숙박을 하자.
③ 영화의 첫 장면은 불법 살인죄에 해당한다.
④ 오늘이 드디어 새댁이 시댁으로 오는 날이래.
⑤ 동해 바다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한참을 기다렸다.

134. <보기>를 참조할 때, 사동 또는 피동의 용례 파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동(使動)은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으로, 동사의 어간에 '-이-, -히-, -리-, -기-, -우-, -구-, -추-'와 같은 접미사가 연결되어 사동의 뜻이 된다. 피동(被動)은 남에게 동작을 당하는 것으로, 동사의 어간에 '-이-, -히-, -리-, -기-'와 같은 접미사가 연결되어 피동의 뜻이 된다. 따라서 '-이-, -히-, -리-, -기-'는 사동과 피동의 경우에 모두 쓰이므로 의미는 다르지만 단어의 형태만 볼 때 동일한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다.

[2점]

① 기본형 : 울리다
사동 : 어머니가 아기에게 사탕을 물렸다.
피동 : 어젯밤 모기에서 물렸다.
② 기본형 : 보이다.
사동 : 그는 나에게 사진첩을 보였다.
피동 :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③ 기본형 : 울리다.
사동 : 형이 장난감을 뺏어 동생을 울렸다.
피동 : 천둥이 울리고 있다.
④ 기본형 : 잡히다.
사동 : 아이에게 연필을 잡혀 글을 쓰게 했다.
피동 : 도둑이 경찰의 포위망에 잡혔다.
⑤ 기본형 : 읽히다.
사동 : 문예반 학생들에게는 세익스피어를 읽혔다.
피동 : 그 책은 재미있게 읽힌다.

135. <보기 1>을 바탕으로,<보기 2>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 듯이 : 의존 명사.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듯 : 의존 명사. (1) '듯이'의 준말. (2) ('은 듯 만 듯', '는 듯 마는 듯', '을 듯 말 듯' 구성으로 쓰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말.
○듯이 :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듯 : 어미. '듯이'의 준말.
○ 듯하다 : 보조 형용사. (동사나 형용사, 또는 '이다'의 관형사형 뒤에 쓰여

) 앞말이 뜻하는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말.

보기2

○ 희망을 주기라도 ㉠하듯 무지개가 떴다.
○ 그 청년은 세상을 다 아는 ㉡듯이 말하고 있다
○ 눈이 올 ㉢듯한 날씨인지라 기분이 스산하다.

[2점]

① ㉠에서 '하'는 어간이고, '듯'은 어미이다.
② ㉠은 '하듯이'로 바꾸어 써도 의미에 변화가 없다.
③ ㉡은 짐작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④ ㉡을 '듯'으로 바꾸어 쓰면 품사도 바뀐다.
⑤ ㉢은 '듯'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136.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지시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여러분, 칠판에 붙인 ⓐ 이것은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 무엇일까요? ⓒ 그것은 ⓓ 무엇이라도 좋으니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보내는 일입니다. ⓔ 이것은 그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 무척 중요합니다. 일부 구호 단체에서 물품을 보내고는 있지만, ⓕ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2점]

① ⓐ는 ⓑ~ⓕ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구나.
② ⓑ는 알 수 없는 대상을, ⓓ는 정해 놓지 않은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
③ ⓐ, ⓓ, ⓕ의 쓰임으로 보아 지시대명사는 조사와의 결합에 그다지 제한이 없구나.
④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와 ⓔ는 같은 기능을 갖고 있구나.
⑤ ⓔ와 ⓕ의 비교를 통해서 지시 대상의 실재 여부에 따라 지시대명사의 선택이 달라짐을 알 수 있어.

137. <보기>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글 맞춤법에 대해 묻고 답한 내용이다.<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질문 : 지하철에서 '자랑스런 우리의 모습 자동차 생산 세계 5위'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럽다'와 같은 형태인 '부끄럽다'는 '부끄러운'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랑스런'과 '자랑스러운'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답변 : '자랑스럽다'나 '부끄럽다'나 모두 'ㅂ'불규칙 용언입니다. 따라서 관형형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 'ㅂ'이 'ㅜ'로 바뀌어 '자랑스러운, 부끄러운'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이나 '부끄러운'이 줄면 '자랑스런, 부끄런'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에서는 'ㅂ'불규칙 용언에서의 'ㅂ'이 바뀐 'ㅜ'가 그 앞의 모음과 어울려 줄어드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합성어에서 이런 준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군고구마, 군밤'이 그런 예입니다. 여기에서 '군'은 '굽다'의 활용형 '구운'이 줄어서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준말이 인정되는 것은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실제 대화에서 'ㅂ'불규칙 용언의 관형형이 '자랑스런, 부끄런'처럼 줄어드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ㅂ'불규칙 용언의 관형형을 줄여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점]

① '자랑스러운'이 언어 현실에도 맞고 맞춤법에도 맞는 표현임을 알 수 있어.
② '구운 강자, 구운 조개'를 '군감자, 군조개'로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군.
③ 어간 말음에 'ㅂ'이 있는 '잡다, 뽑다' 등은 '부끄러운'과 달리 규칙적으로 활용하는군.
④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의 일부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⑤ '시끄럽다, 촌스럽다' 같은 말은 '부끄럽다'와 달리 '시끄런, 촌스런' 등으로 쓸 수 있겠군.

138. <보기>를 참고로 심화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의 문장 구조에서는 서술어가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 이를 생략하는 수가 있다.

<사례>

•정부는 새 법을 즉시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
•"이제 그만."
•"난 볶음밥."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2점]

① 마침표로 말을 줄이고 서술어 전부를 생략한 경우
② 주어와 호응이 명백하므로 서술어 전부를 생략한 경우
③ 무엇인가에 감탄하거나 놀라 서술어를 채 말하지 못한 경우
④ '하다' 형태의 서술어가 이어질 때 앞 서술어의 일부를 생략한 경우
⑤ 발화자의 특정한 물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술어를 생략한 경우

139. <보기 1>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탕으로<보기 2>의 예문을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예-급히, 꾸준히)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예-갑자기, 반드시)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예- 곰곰이, 일찍이)

보기2

㉠ 방이 지저분해 말끔히 치우기는 어렵다.
㉡ 그녀의 처지를 딱이 여겨 올래 도와주었다.
㉢ 순이가 나를 보고 생긋이 웃어 주었다.
㉣ 아무도 올래 슬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 갈대는 바람이 쓰러뜨려도 다시 더우기 일어선다.

[2점]

① ㉠의 '말끔히'는 제25항-1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올바른 표기입니다.
② ㉡의 '딱이'는 제25항-1의 규정에 따라 '딱히'로 고쳐야 합니다.
③ ㉢의 '생긋이'는 제25항-1의 규정에 따라 표기한 예에 해당합니다.
④ ㉣의 '슬며시'는 제25항-1-[붙임]의 규정에 따라 표기한 예에 해당합니다.
⑤ ㉤의 '더우기'는 제25항-2의 규정에 따라 '더욱이'로 고쳐야 합니다.

140.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의 예시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도둑이 경찰에게 쫓긴다. → 경찰이 도둑을 쫓는다.
ㄴ. 날씨가 많이 풀렸다. → (하늘이) 날씨를 많이 풀었다.
ㄷ. 꿩 한 마리가 사냥꾼 세 명에게 잡혔다. → 사냥꾼 세 명이 꿩 한 마리를 잡았다.

ㄱ의 경우 두 문장의 기본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두 문장이 무엇을 강조하여 나타내는가에 차이가 있다. 피동문은 '도둑'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능동문은 '경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ㄴ의 경우에는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바꾸면, '(하늘이) 날씨를 많이 풀었다.'와 같이 되어 어색하다. 날씨를 풀리게 한 행위의 주체를 뚜렷하게 의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ㄷ의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다. 피동문이 '사냥꾼 세 명이 함께 꿩 한 마리를 잡았다.'라는 의미라면, 능동문은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냥꾼 세 명이 제각기 꿩 한 마리씩을 잡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꾸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2점]

①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
② 그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혔다.
③ 흉흉한 소문이 나에게도 들렸다.
④ 행운권 한 장이 세 사람에게 뽑혔다.
⑤ 올해는 지리산 벚꽃의 개화 시기가 많이 당겨졌다.

141. <보기 1>의 내용을 토대로<보기 2>의 문장을 설명한 것이다. 그 내용이 잘 못된 것은?

보기 1

부정문에서는 부정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같은 문장이라도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량을 나타내는 부사 '다, 모두, 조금, 많이' 등이 있으면 부정의 범위에 그 부사의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보기 2

ⓐ 철수가 책을 안 읽었다.
ⓑ 동네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 학생들이 모두 식사를 하지 않았다.

[2점]

① ⓐ에서 '안'의 부정은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 두루 적용될 수 있다.
② ⓐ의 문장에서 '안 읽었다'를 '읽지 않았다'로 바꾸어도 중의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③ ⓑ는 '모든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와 '일부의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에서 '오지'를 '오지는'으로 수정하면 '모든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⑤ ⓒ에서 '학생들이'를 '학생들은'으로 수정하면 '식사를 한 학생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142. ⓐ~ⓔ를 문장의 종결 형태와 조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 종결 형태에는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이 있다. 이는 상대 높임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상대 높임법 체계

격식체	비격식체	반말(半-)
ⓐ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	ⓓ 두루 높임 (해요체)	ⓔ높임도 낮춤도 아닌 어중간한 말 혹은 낮추어 이르는 말
예사 높임 (하오체)		
ⓑ 예사 낮춤 (하게체)	두루 낮춤(해체)	
ⓒ 아주 낮춤 (해라체)		

[2점]

① ⓐ : 평서문 -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② ⓑ : 청유문 - 자네, 나와 같이 그곳을 가 보자.
③ ⓒ : 명령문 - 방학 때 책을 많이 읽어라.
④ ⓓ : 감탄문 - 눈이 내린 경치가 매우 좋아요.
⑤ ⓔ : 의문문 - 이것은 도대체 무슨 물건이지?

143. 끝말잇기 놀이를 한 결과를 적은 것이다. 바른 표기로만 이어진 것은?

[2점]

① 숫돼지 → 지렛목 → 목도리 → 이마쌀
② 수키와 → 와장창 → 창문짝 → 짝수날
③ 숫영소 → 소고기 → 기찻길 → 길잡이
④ 오뚝이 → 이따금 → 금바기 → 기꺼이
⑤ 맑은솔 → 솔동이 → 이튿날 → 날개짓

144. <보기>의 빈 칸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규칙활용 -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규칙적인 것
ㄱ 활용 예) '먹다' : '먹+어 → 먹어, 먹+고 → 먹고'
ㄴ 규칙용언 예) '벗다, 솟다, 씹다, 입다, 얻다'
불규칙활용 -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ㄱ 활용 예) '짓다' : '짓+고 → 짓고, 짓+어 → 지어'
ㄴ 불규칙용언 예) '[ ]'

[2점]

① 붓다 ② 젓다 ③ 줍다 ④ 듣다 ⑤ 쏟다

145. 밑줄 친 말의 쓰임이<보기>의 설명과 관계없는 것은?

보기

'불굴'이나 '얼떨결' 같은 말은 '불굴의', '얼떨결에'라는 표현으로만 사용된다. 이는 자립 명사가 조사와 결합할 때 제약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특정한 조사와 결합하여 일종의 관용구를 구성하여 그 쓰임이 특이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의 조사들은 선행하는 명사와 거의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쓰임이 굳어져 있다.

[2점]

① 국가와 국민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② 위험한 일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별 뜻 없이 한 말이나 마음에 담아 두지 말아요.
④ 홧김에 한 말 때문에 오랫동안 기분이 우울했어요.
⑤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손잡이를 놓칠 뻔했어요.

146. <보기>의 설명을 참조할 때,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에서는 전통적으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구별이 엄격하여, 단어가 형성되거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성격이 같은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약화되면서 양성 모음이 쓰일 자리에 음성 모음이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표준어 규정 제`8`항>에서도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2점]

① 예쁜 옷을 입은 꼬마가 깡충깡충 뛰어갔다.
② 물이 너무 차가와서 이가 시릴 정도였어요.
③ 그 절터에는 주춧돌만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④ 할머니가 이고 있던 큰 보퉁이를 얼른 받았다.
⑤ 너는 마음이 고와서 어른들께 사랑을 받겠구나.

147. <보기>는 동사의 불규칙활용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참고로 할 때, 밑줄 친 동사 중 불규칙활용을 하지 않는 것은?

보기

동사의 활용에는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규칙활용'이 있는가 하면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바뀌는 '불규칙활용'이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가) 현수가 새 옷을 입습니다. / 현수는 새 옷을 입고 출근을 합니다.
현수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 현수는 새 옷을 입으면서 거울을 봅니다.

(나) 현수는 음악을 듣습니다. / 현수는 음악을 듣고, 민수는 신문을 봅니다.
현수가 음악을 들었습니다. / 현수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가)의 '입다'는 어간인 '입-' 뒤에 어떤 어미가 붙어도 어간의 원래 형태가 바뀌지 않는 규칙활용을 하는 반면, (나)의 '듣다'는 '듣-'이라는 어간의 형태가 경우에 따라 '들-'로 바뀌며 불규칙활용을 한다.

[2점]

① 영주가 집을 짓습니다.
② 영주가 철수를 돕습니다.
③ 영주가 소풍 장소를 묻습니다.
④ 영주는 철수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⑤ 영주는 이것은 모르고 저것은 압니다.

148.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의 예시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도둑이 경찰에게 쫓긴다. → 경찰이 도둑을 쫓는다.
ㄴ. 날씨가 많이 풀렸다. → (하늘이) 날씨를 많이 풀었다.
ㄷ. 꿩 한 마리가 사냥꾼 세 명에게 잡혔다. → 사냥꾼 세 명이 꿩 한 마리를 잡았다.

ㄱ의 경우 두 문장의 기본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두 문장이 무엇을 강조하여 나타내는가에 차이가 있다. 피동문은 '도둑'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능동문은 '경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ㄴ의 경우에는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바꾸면, '(하늘이) 날씨를 많이 풀었다.'와 같이 되어 어색하다. 날씨를 풀리게 한 행위의 주체를 뚜렷하게 의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ㄷ의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다. 피동문이 '사냥꾼 세 명이 함께 꿩 한 마리를 잡았다.'라는 의미라면, 능동문은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냥꾼 세 명이 제각기 꿩 한 마리씩을 잡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꾸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2점]

①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
② 그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혔다.
③ 흉흉한 소문이 나에게도 들렸다.
④ 행운권 한 장이 세 사람에게 뽑혔다.
⑤ 올해는 지리산 벚꽃의 개화 시기가 많이 당겨졌다.

149. <보기>는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의 사례들이다.<보기>의 사례들을 활용하여 올바른 문장의 요건을 설명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인간은 자연에 복종도 하고, 지배도 하며 살아간다.
ㄴ. 운행 중에는 운전 기사와 잡담을 하거나 과속을 금지한다.
ㄷ. 그 회사에서는 정화시킨 오염 폐수만을 강으로 내보낸다.
ㄹ. 8시가 넘었는데도 영희는 아직 학교에 도착하고 있지 않다.
ㅁ. 자선 단체에게 돈을 냈던 안 냈던 간에 마음이 중요하다.

[2점]

① ㄱ → 문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지나치게 생략하면 안 된다.
② ㄴ → 문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③ ㄷ → 의미상 논리적으로 모순 되는 단어들을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④ ㄹ → 어휘 또는 표현 간에 시제가 적절하게 호응되어야 한다.
⑤ ㅁ → 조사나 어미가 그 용법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150.<보기 1>을 바탕으로<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1>

격조사 : 문장 속에서 체언이 서술어나 다른 체언과 가지는 관계를 표시해 주는 조사
보조사 : 체언이나 부사 등의 뒤에 결합하여 특수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
특히, '은/는'은 다음과 같은 뜻을 더해줌
1.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
2.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냄
3. 강조의 뜻을 나타냄